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35.93 (-48.50)	684.36 (-13.21)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603 (+0.067)	1450.65 (+15.15)



“해외 투기자본 악용할 것” vs “소액주주 보호 필요”

〈재계 측〉

〈투자자 측〉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 추진 재계 “고소·고발 늘어 리스크↑” 투자자 “투명·공정한 시장 원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와 투자자 간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주주 권의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지만, 재계는 경영 활동 위축과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경제단체, 소액주주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7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II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상법 개정 취지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상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참석한 재계 인사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의 안처럼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게 되면 고소·고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영 리스크 증가는 물론 투자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으로 인한 밸류업보다 기업 자체의 ‘본업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

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100만개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더욱 어려워지고, 주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이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 반도체부품 중소기업 사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연구개발에 써야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선임위원장은 “해외 투기자본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먹튀’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실적과 업종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단순한 상법 개정은 밸류업에 제한적 효과만 낸

다”며 상법 개정의 한계도 지적하며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확장에 더해 상법 개정하면 기업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주주 충실의무를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하면, 이사회는 장기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맞섰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 이익만을 위해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주주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대표인 박광현 두산에너지빌리티 주주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소액 투자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원한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 없이는 투자자를 돌아오게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결국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매파적 금리인하’에 한은, 고심 깊어진다

美 연준, 기준금리 0.25%p 내려 내년엔 4차례→2차례 인하 전망 환율 1450원 돌파… 주식도 급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 ‘매파적 금리인하’(통화 긴축 선호)란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물가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트럼프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치솟을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매파적 금리인하 소식으로 우리나라 주식과 원화값은 크게 떨어졌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16.4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달러당 1451.90에 마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이 18일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다. 장 초반에는 1453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식시장도 파랗게 질렸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48.50포인트(1.95%) 하락한 2435.9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일보다 13.21포인트(1.89%)나 하락해 684.36에 장을 끝

냈다.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만 4300억원 어치나 팔았고, 기관 순매도는 5000억원이 넘었다.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주요 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제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금융·외환 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그는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김연세·나유리·안승진 기자 kys@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헌법정신·국가 미래 최우선 고려 협치 절실한 상황… 마음 무겁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권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권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



일 야당 주도로 처리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조실장 “재의요구 법안, 국회와 심사 숙고” /사진 뉴시스
▲ 조국혁신당, 새 최고위원에 서왕진 의원 선출… “정권교체 예언”

▲ 정부, ‘거부권=탄핵사유’ 야당 주장에 “어느 헌법 규정 따른 판단인가”
▲ 국방부 “군내 ‘사조직’ 있을 수 없고 지도도 않아”



▲ 산업장관,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에 “상당히 곤혹” /사진 뉴시스
▲ 여 “야, 아무리 ‘내란’ 외쳐도 범죄 옹호당 이미지 희석 안 돼”

‘온라인 플랫폼법’ 필요성은 공감 與 “사후 규제” 野 “사전에 감시”

‘온플법’ 논의 재점화

한차례 일단락됐던 ‘온라인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안)’이 탄핵정국을 맞아 재소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온플법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

19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이룸으로 낸 성명서를 통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의견을 냈다. 성명서는 올 들어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안이 플랫폼법의 우려스러운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낸 데에는 같은 날인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연 비공개 공청회가 계기가 됐다. 공청회는 국회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업계 관계자,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모두 플랫폼의 독점 및 소비자·입점 소상공인의 권리 등과 관련된 법안이다.

정부·여당 안과 야당 제정안 간 차이는 규제를 사전, 또는 사후로 할지에 대한 차이다. 정부·여당 안은 사후규제를 골자로 일정 수준의 반칙 행위가 일어난 기업에 대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자 한다. 반면 야당안은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시장 독점적 기업으로 사전 지정해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온플법은 지난 정권부터 논란이 계속됐다. 문재인 정권이던 2021년 국정감사 때 처음 논란이 인 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온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9월 국회 소동관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실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당시 모습. /참여연대

정무위 공청회서 관련법안 논의
美 상공회의소 ‘공개적 우려’ 표명

“플랫폼 지배력 강화, 소비자 피해
온플법, 종합적 규제 마련해야”

“작년 네이버 법인세, 구글의 30배
과도규제, 생태계·소비자 피해”

특히 주요 기업들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사건이나 문어발식 경영이 문제시 될 때마다 소비자와 직원, 입점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치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불만신고센터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온플법과 독점규제법 모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과거에 스스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을 밝히기도 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었기에 온라인 플랫폼에 적절하지 않다. 플랫폼의 거래중개행위에 대해 종래 납품을 전제하는 유통업법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갈라파고스화하고 있는 한국 IT 빅테크 기업의 현실

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가 해외 초 대형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커졌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주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법인을 본사 서비스 대행으로 두고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이 탓에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155억원을 냈는데, 네이버는 여기에 30배에 달하는 495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구글이 9월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스스로 창출한 경제효과는 131조 원에 달한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온플법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참고했지만, 국내 환경과 글로벌 경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입법 과정의 세밀함을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플랫폼 생태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는 카카오(15위), 네이버(23위), 쿠팡(27위)이 있는 반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금감원, 부실 사업장 22.9조 10.9%
상호금융 10.9조, 저축은 4.4조 등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210조 40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유·부실우려 사업장은 22조 9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사업장 정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부실’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의 10.9% (22조 9000억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금융권별로 보면 상호

금융이 10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저축은행 4조 4000억원 ▲증권사 3조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2조 7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실시한 1차 평가에서 20조 9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 대상으로 지정했고, 10월 말까지 이 중 21.4%인 4조 5000억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29.0%로 가장 높은 완료율을 보이며 ▲증권사 20.7% ▲상호금융 17.7% ▲저축은행 16.7%로 뒤를 이었다.

김병철 금감원 부원장은 “정리·재구조화 계획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경·공매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일부는 내년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

리·재구조화가 금융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금융사들이 추가로 적립한 총당금은 2조 4000억원이며, 전체 총당금 규모는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의 자본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PF 고정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5.2%에서 9월 말 기준 11.3%로 6.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PF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PF 정리·재구조화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사업장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윤 기자 zelkova@

오징어게임2·조명가게 등 기대감 시들했던 OTT 시청, 반등 꾀한다

계엄사태 이후 OTT방문자 ‘뚝’

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한 탄핵 정국을 맞이한 가운데 뉴스 시청률이 급증하며 국내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방문자수가 줄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주요 OTT들은 기대작을 연일 개봉하며 반등을 꾀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조명가게’를 개봉하며 반등에 성공했으며 ‘오징어게임’ 시즌 2 개봉을 앞둔 넷플릭스의 시청의 향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넷플릭스 일 순 방문자 수(DAU)는 비상계엄 선포 전인 1일 271만 9519명에서 선포일인 3일 249만 3372명으로 약 8% 줄었다.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238만 2528명으로 전날보다 2만명 가량이 덜 방문했다. 티빙 방문자 수도 1일에는 146만 9374명에서 4일에는 142만 5132명으로 소폭 줄었다.

계엄이후 뉴스시청률 최대 5%p ↑

디즈니플러스 ‘조명가게’ 공개에
방문자 42만여명, 월초 대비 급등

넷플릭스 ‘오겜2’ 오는 26일 개봉
인지율·시청의향 역대최고치 기록

이 가운데 쿠팡플레이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1일 87만 8767명을 기록했던 일 순 방문자 수는 비상계엄 선포일인 3일 68만 9387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웨이브는 같은 기간 115만 173명에서 107만 3479명으로 떨어졌다.

디즈니플러스는 1일 38만 5090명에서 3일 31만 5496명으로 방문자 수가 약 19% 줄어들었으며, 왓차는 1일 6만 8605명에서 3일 6만 475명으로 약 13% 감소했다.

반면 뉴스 시청률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상과 주요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이달 1일 3~6%대 수준을 기록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에는 5~11%대로 늘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부터 OTT들은 기대작을 연일 공개하며 반등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디즈니플러스는 지난 4일 강풀작가의 ‘조명가게’를 공개하며 방문자 수가 급등하고 있다. 이날 방문자수는 지난 1일보다 훨씬 많은 42만 2932명을 기록하며 구독자수를 모았다.

조명가게는 강풀작가의 웹툰이 원작

으로 공개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또 디즈니플러스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최고 흥행작인 ‘무빙’을 MBC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OTT 콘텐츠가 공중파 방송에 방영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를 기반으로 디즈니플러스는 ‘무빙2’를 제작키로 결정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성장이 가장 주목되는 OTT는 넷플릭스다. 글로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다. 오는 2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2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최대 기대작이다.

이에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는 구독자 3명 중 1명은 오징어 게임2를 보기 위해 신규 구독을 고려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공개 전부터 인지도와 시청의향률 모두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개 4주(11월 30일~12월 1일) 전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인지도 88%, 시청의향률 62%를 기록한 뒤, 일주일 후(12월 7일~8일)에는 각각 91%, 65%까지 치솟았다.

오징어게임 2는 구독자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넷플릭스 비구독자 중 오징어 게임2가 론칭되면 넷플릭스를 구독·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독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3명 중 1명(32%)에 달했다.

특히 오징어 게임 2의 개봉을 앞두고 넷플릭스의 주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미국 나스닥 94.65% 주가가 상승한 넷플릭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장중 941.75달러를 찍으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오징어 게임2는 정식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시상식 최우수 TV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오르는 등 평단의 호평이 기대시리를 자극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 OTT인 티빙도 한국프로야구 중계를 내내에도 지속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티빙은 지난 4월 프로야구 리그 개막과 함께 이용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 10월 기준 8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해외 축구 중계로 이용자를 끌어올린 쿠팡플레이는 드라마를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그간 해외축구 중계와 ‘SNL 코리아’로 이용자를 끌어모았지만 류승범·배두나 주연의 드라마인 ‘가족계획’도 공개 1주일 만에 시청률이 225% 이상 급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티칼리지(LACC)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2’ 팬 이벤트가 열렸다.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이병헌, 임시완, 양동근, 강애심, 이서환, 조유리가 팬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넷플릭스

野黨 불참한 정보위 “참전 북한군 1100여명 사상” 정보공유

정보위, 러-우크라이나 北 현황

쿠르스크 배치 북한군 1.1만명 추정 이달부터 실전 투입, 장성급도 사망

“북한, 대남 무관심 모양새 견지 한국 정치상황 등 언급하지 않아”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정보위원들은 불참했다.

국정원은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종전 협상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 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가



조태용(왼쪽 두 번째)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성범(가운데) 정보위원장과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인해 장성급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전사한 최고위 계급은 적어도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규모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대신 북한의 파병 징후들이 보이고 파병 여력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판단된다). 폭풍 군단은 10개 여단 4만 2000명의 군사력을 가졌고, 현재 1만 1000명이 파병됐다”고 답했다.

북한군 내에 동요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 주민과 군인 내에서 동요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군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추가 파병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현재 한국의 계엄선포

사태 등 상황을 사실관계 위주로만 보도하고, NLL MDL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 기초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언급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체제 관리 부

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기초의 보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이유를 두고는 “야당 간사께서 계엄 사태로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하에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엄 문제로 안보, 외교, 경제에 최대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조태용 국정원장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와는 별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에는 “국정원이 짧게 자료 제출만 했고, 정치적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m

>> 1면 ‘한덕수, 양곡법 등...’서 계속

비대위원장 후보에 ‘친윤계’ 거론... 내주 인선 가능할까

국민의힘, 선수별 후보 추천받아 권성동 겸직·투톱 체제 등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선수(選數)별 모임을 시작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초선과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선수별로 2명씩 추천을 요청했다고 한다.

권 권한대행은 선수별로 의견을 받고 내주 초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어, 논의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재선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선수별 모임을 통해 비대위원 후보군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진·김승수·박수영·엄태영·이인선·조정훈·정희용·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급하게 모임이 잡힌 탓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태영 의원은 재선의원 모임 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이 8명밖에 안 오셔서 개별적으로 다시 의견을 모아 내일(20일) 오전 중에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선의원들은 비대위의 성격과 체제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도 권성동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하는 안과 조기 대선을 감안해 ‘투톱’ 체제가 필요하다는 안이 모두 거론됐다. 그러면서 “(재선 의원들은) 원톱으로 갈지, 투톱으로 갈지는 반반”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비대위가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관리형’이 될지, 전반적인 당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혁신형’이 될지를 먼저 정해야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엄 의원은 “일단 비대위의 성격을 정해야 (내부 인사인지 외부 인사인지) 거기에 맞는 인물도 추려질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식과 통합의 의미가 있는 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들도 같은날 오후 선수별 모임에 나섰다. 초선 모임 간사인 김대식 의원 측은 오후 4시30분 초선 의원 회동을 공지했다. 초선과 재선은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날(18일) 의원총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친윤·중진들이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민심과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민심을 돌려세우면서도, 흑시라도 있을 조기대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가깝거나 그동안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초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까지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양곡법 개정안 시행엔 쌀값 하락 심화시킬 것”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중언감정법에 대해서는 “중요한 안전심사와 청문회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서예진 기자

美 “기준금리 인하 속도조절... 물가 2%로 낮출 것”

>> 1면 ‘美, 매파적 금리인하...’서 계속

미 연준은 이날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4.5%로 0.25%p 낮췄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5.25~5.5%에서 4.75~5%로 0.5%p 인하한 뒤 11월 0.25%p, 12월까지 총 1.0%p를 인하했다. 한국(3.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50%p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안정과

고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박빙의 결정(closer call)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 파월, 트럼프와 충돌 예고

이날 FOMC 의원들은 향후 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를 통해 내년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지난 9월 4회 인하할 것 이란 전망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FOMC 의원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일부 FOMC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을 전망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정책의 정확한 영향 평가는 가능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모든 국가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미국 내 수입품은 관세비용이 전가돼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 무작

정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물가흐름을 보고 금리인하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3.1%에서 11월 2.7%대로 떨어진 상태지만 목표치 2%보다 높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이 정도의 물가수준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준금리 인하속도를 조절해서라도 2%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FOMC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금리조정 폭(Extend)과 시기(Timing)라는 표현을 사용해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수출액 年 100억달러 눈앞... 럭셔리·다변화로 불 지핀다

수출 효자 'K-뷰티'

올해 화장품 수출액 연간 1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1월 화장품 수출 실적은 9억2100만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93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 2021년의 91억 8000억 달러를 이미 넘긴 것이다.

이처럼 화장품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들이 잇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해 국내 뷰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21년 역대 최대 기록 이미 초과
1월부터 11월 누적 수출액 93억달러
지난달 수출 실적 전년비 19.4% ↑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1월 가장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027년까지 연 평균 10%의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12%, 자기자본이익률 7~8%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의 경우 현재의 2배 수준인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리벨런싱 가속화에 중점을 뒀다. 아모레퍼시픽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인 '설화수'는 '자음생' 제품군을 핵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는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에비스303에서 브랜드 모델 르세라핌 사쿠라와 함께 '글래시 레이어 틴트'의 현지 출시 행사를 열었다. /애경산업

심 엔진 상품으로 육성해 매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정 지역과 채널에 대한 수익 의존도는 낮출 필요가 있으면서도 중화권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다변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북미 시장에서는 '라네즈'와 '코스알엑스'를 통해 거둔 성공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 미래 성장 기회를 탐색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 해외 사업에서 가장 큰 매출을 거둔 곳은 미주 지역으로, 지난 2023년 3분기 707억원에서 올해 3분기 1466억원으로 108% 증가하는 매출 성과를 거뒀다. 반면, 중국에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의 올해 3분기 매출은 9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LG생활건강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주주 환원 정책, 실적 개선,

지배구조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은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오는 2030년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고, 주요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2023년 7% 수준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사업에서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를 통해 글로벌 명품 화장품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북미 지역을 비롯해 신규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에서는 유통 채널 전략을 다각화한다.

생활용품 사업은 온라인 경쟁력을 높여 국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음료 사업은 가격 경쟁

력으로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LG생활건강 측은 이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안정적인 이익과 지속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함께 외형과 내실의 동반 성장에 기반한 주주환원을 확대하며 시장의 평가를 높이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우선 애경산업의 중장기 목표는 오는 2027년까지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하고, 자기자본이익률을 1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동종 업계 대비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5배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북미·中 성장 전략
LG생활건강, 생활·음료 프리미엄화
애경산업, 프리미엄 포트폴리오 강화

애경산업은 향후 ▲메가 브랜드의 글로벌화 및 신규 국가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외 디지털 채널 중심의 유통채널 경쟁력 확보 ▲화장품 포트폴리오 및 프리미엄 라인 강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등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애경산업 측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주주환원을 위해서는 매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화장품 부문 강화, 글로벌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결실은 주주중심 경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인디브랜드 중심, 제조·유통 가치 사슬 강화

글로벌 시장 매출 확대·성장세 지속
美 시장에서 인디브랜드 매출 비중 25%
전략적 제휴 등으로 높은 수익률 달성

'K뷰티'가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성장한 결과, 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제조나 유통 등에 사업 기반을 둔 기업들 과도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글로벌 유통 전문 기업 실리콘투는 'K뷰티'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매분기 실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리콘투는 올해 3분기까지 총 누적 매출 51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118.4% 증가한 규모다. 누적 영업이익은 1110억원, 누적 순이익은 887억원이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7.1%, 216.6% 확대됐다.

실리콘투는 조선키친, 아누아, 코스알엑스, 스킨1004 등 K뷰티를 대표하는 국내 인디 브랜드들을 해외 시장에 전파하면서 이들 인디브랜드들과의 동반 성장도 이뤄냈다. 실리콘투의 전체 매출에서 미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이며, 이들 브랜드들도 미국에서 입지를 다졌다.

실리콘투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누적 매출은 1158억원으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0% 수준이



영국 모이다 매장은 K뷰티 제품을 한 곳에서 선보이며 현지에서 해외 소비자들의 K뷰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실리콘투

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실리콘투가 유통하는 핵심 브랜드인 '조선키친'로 올린 올린 매출은 11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었다.

실리콘투는 기존 국가별, 브랜드별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K뷰티 사업을 영국, 유럽 등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실리콘투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런던 쇼 핑몰에서 '모이다'를 공식으로 공개했다. '모이다'는 뷰티, 웰빙,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선보이는 멀티 뷰티 매장으로, 실리콘투는 다양한 K뷰티 브랜드

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이번 영국 매장은 전 세계 2호 매장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매장이 모이다 1호점이다. 실리콘투는 오는 2025년 3월에는 영국 런던 소호에 런던 내 2호점 매장을 연다. 또 실리콘투는 맨체스터 매장도 준비하는 등 향후 5년 내 영국 전역에서 모이다 매장 1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리콘투는 영국에서 마구로그룹의 자회사인 메이드바이네이처와 협력한다.

마구로그룹은 영국에서 K푸드 레스토랑 '분식', '고기' 등 1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실리콘투는 마구로그룹이 갖추고 있는 물류 거점을 적극 활용해 영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리콘투는 새로운 K뷰티 브랜드 발굴에도 집중해 왔다.

뷰티테크 기술력으로 K뷰티 지평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에이피알도 일찍이 K뷰티 산업의 성장성을 내다보고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에이피알은 최근 화장품 제조기업 노디너리에 집행한 투자가 3년 만에 600%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에이피알은 지난 1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화장품 제조기업 노디너리의 지분 일부를 투자사 코너스톤투자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코너스톤 청룡4호 신기술조합 등에게 매도했다.

에이피알은 앞서 지난 2021년 8월 노디너리의 지분 16.77%를 10억원에 취득한 바 있고, 이번 매매계약 후에도 에이피알은 노디너리 잔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 제휴는 이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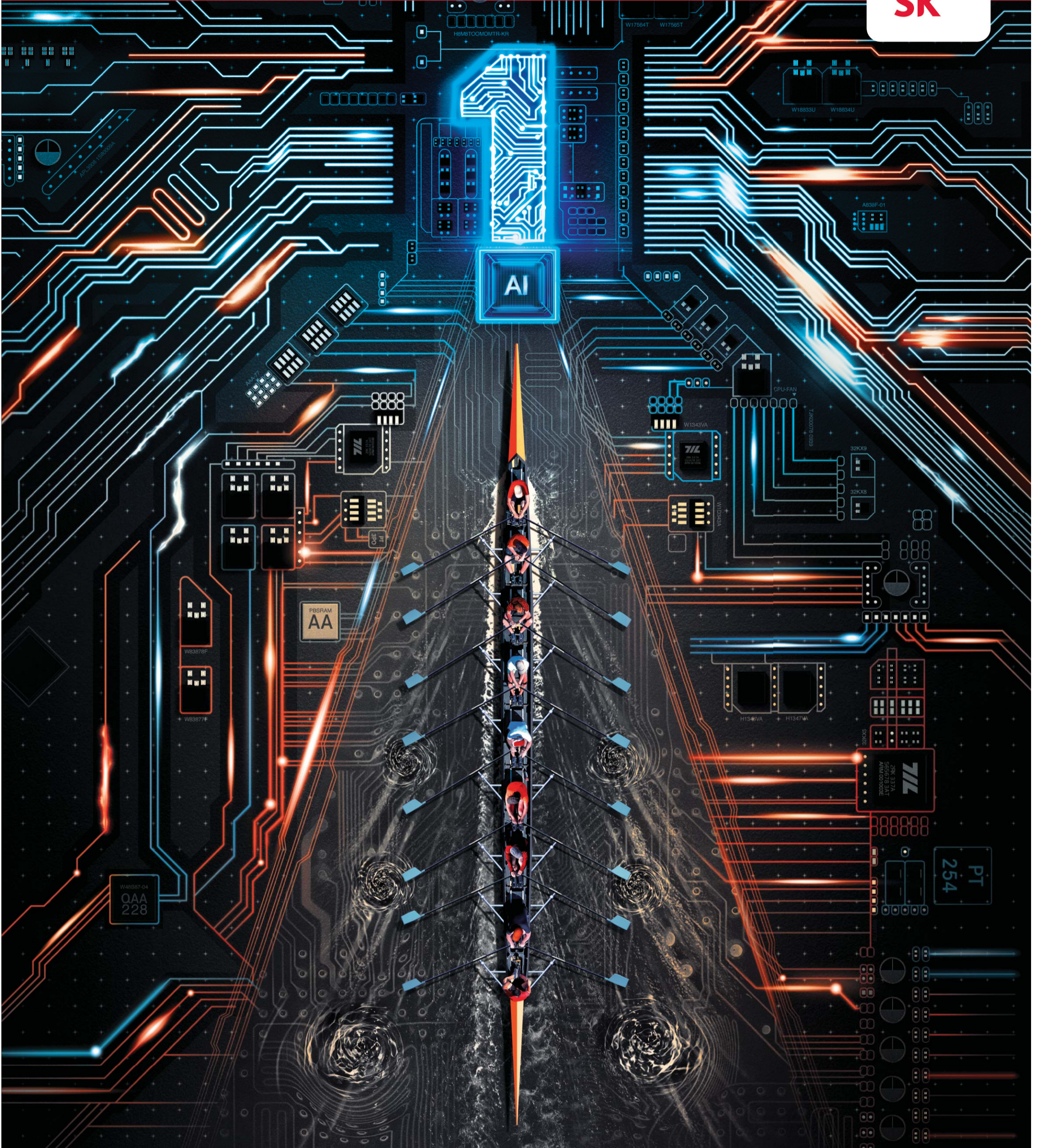
에이피알은 향후에도 자사 브랜드의 성장과 국내 뷰티 산업 전반을 동시에 흥행시키는 투자를 통해 각 기업이 각자 영역에서 발전하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내 뷰티 업계에서 서로 다른 산업군의 시너지 효과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신흥 지역 개척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블리몽키즈는 인도에서도 K뷰티가 소비자 인기를 끌어내면서 자사의 마카롱 내 뷰티 제품 판매량도 평균 20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K뷰티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군으로 위상을 높이면서, 무대가 넓어졌다고 보면 된다"며 "국내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을 차별화하거나 모두 아우르거나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는 것처럼 국내외 시장에서도 K뷰티의 생존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원팀으로 AI시대를 여는 FIRST MOVER

한미약품 임시주총 '3자연합' 승리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 리더십 확인”

3자연합 6명, 임종윤·종훈 측 4명
한미약품 이사회 구도 기존 유지
한미사이언스 위수탁 관계 지속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연합' 측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했다.

19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3자연합' 측인 한미약품의 박재현 대표이사 및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이사회 구도는 기존대로 3자연합 측 6명, 임종윤·종훈 측 4명으로 유지된다.

앞서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한미약품 이사회를 재구성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형제 측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그 결과, 박재현 대표 해임 안건은 출석 주식 수의 53.62%에 해당하는 547만9070주가 찬성하고, 46.32%인 473만3105주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신동국 이사 해임 건은 출석 주식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19일 서울 송파구 교동회관에서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수의 53.64%인 548만1320주가 찬성, 46.30%인 473만1474주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특별결의 안건으로, 주총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66.7% 이상이 동의한다는 득표율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1268만214주였고, 출석률은 80.59%로 1021만9107주였다.

해당 임시 주총이 마무리된 후,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확고한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공고한 리더십을 확인해 주신 주주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박재현 대표이사는 “사실 한미약품 경영 기조는 바뀐 적이 없다”며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맺고 있는 업무상 위수탁 관계는 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형제 측이 문제 제기한 한미약품 내 신규 법무팀이나 인

사팀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기존 틀’ 안에서 존재하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이 박재현 대표의 설명이다.

다만, 한미사이언스가 박재현 대표 이사를 비롯한 한미약품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총 8건의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박 대표는 “매우 답답하다”며 “고소·고발을 취하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다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주주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의견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주사 대표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나 한미약품그룹 전체가 최선의 경영으로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2년 연속 늘어

공정위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여부 등 감시

대기업 계열회사에 재직하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88개 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4개사(5.9%)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5.9%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했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총수일가 등에 부당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정보통신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여전히 미등기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정보통신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례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소폭(-0.4%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진의 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구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99.4%)이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6%)로 이 가운데 9건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이사의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알리바바, 백화점 팔고 e커머스 공세 '집중'

백화점 '인타임 그룹' 1.4조에 매각
이달 초 韓 에이블리에 1000억 투자
공격적 해외전략 시 국내기업 위협

알리바바가 오프라인 매장 사업을 축소하고, 온라인 중심의 핵심 사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패션 플랫폼에 1000억 원을 투자해 e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자국에서는 백화점 체인 '인타임'을 매각하며 사업 재편을 통해 e커머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백화점 체인 '인타임(銀泰) 그룹'을 중국 의류업체 야고르 패션에 약 1조4000억원에 매각한다. 이는 알리바바가 인타임을 인수한 지 7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번 매각은 알리바바가 큰 손실을 감수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이번 매각으로 알리바바가 약 1조83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알리바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신유통' 전략을 내세워 지난 2017년 인타임을 시작으로 대형마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 본사 모습. /뉴시스

트 체인 '다룬과', '선 아트 리테일 그룹'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오프라인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중국 경제 불황,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 등으로 오프라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이번 매각은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e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해 본업에 충실하기 위한 알리바바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알리바바의 이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 국내 e커머스 시장에 강력한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 패션 e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하 에이블리)은 이달 초 알리바바 그룹으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알리바바가 한국 e커머스 플랫폼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첫 사례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위축된 국내 e커머스 시장을 고려하면, 거액의 외부 투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알리바바가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한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국내 e커머스 기업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바바가 중국 내 오프라인 사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e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해외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알리바바의 공세가 심화된다면 국내 e커머스 기업들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선 기자 wotjs4187@

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1.13% 추가 확보

고려아연 “적대적 M&A 저지할 것”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지분 1% 이상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미 대응 준비를 충분히 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지분 1.13%를 추가 취득,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주식 기준 46.7%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MBK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자유재량 매매(CD)'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13%, 23만4451주를 장내 추가 취득했다. 평균 취득단가만 125만원 수준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주당 194만원에 1만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은 “이같은 MBK의 매입 행위는 과거 MBK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인 83만원과 89만원에 대해 적정가격보다 높아 배임이라

고 주장한 것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러한 주장에 기반해 두 차례 재담가처분을 제기하며 시장교란과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온갖 위법 행위로 시장과 주주,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호도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가 공개매수 이후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는 장내 매수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실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왔다”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충분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과 임직원이 푹푹 뭉쳐 적대적M&A를 반드시 저지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국가 기간산업 고려아연이 중국을 비롯해 대부분이 해외자본으로 구성된 투기적 약탈자본이자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 주요 주주 등이 모두 외국인으로 알려진 MBK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민국 No.1답게 새로움을 담다 김치의 또 다른 이름

종가
JONGGA



브랜드파워 김치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01년~2024년)
조사기간 2023.10~2024.01,
전국 만 18~64세 남녀 12,500명 대상



한국산업의구매안심지수 김치부문 1위
[사]한국마케팅협회, [주]소비자평가 (2024년)
조사기간 2023.02.01~2023.02.15,
전국 남녀 3000명 대상



The NYF K-NBA 김치부문 1위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국가브랜드대상 (2024년)
조사기간 2023.12~2024.01,
전국 만 16세 이상 남녀 3000명 대상



iF Design Award 2024 2관왕
Brand Identity, Commercial Exhibition 부문
종가 <김치 블라스트 서울 2023>

‘불확실성 파고 넘어라’... 보험업계, 상품 경쟁력 승부수

삼성화재, 업계 첫 비만보험 출시
신담보 2종 등 배타적 사용권 획득
흥국화재,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표적약물 허가치료제 신담보 개발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사 상품 경쟁력 강화 이미지.

탄핵 정국으로 금융업계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상품 경쟁력에 집중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근본적인 보험 상품을 강화하면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업계 최초로 비만보험을 출시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화재는 이번달 ‘비만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치료비’와 ‘당뇨 GLP-1 급여치료비’ 신담보 2종을

선보였다.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서 비만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업계 최초로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해당 신담보 2종과 비만관리 서비스

(Fat To Fit)는 독창성을 인정 받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해 11월 임신부·아기보험으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1년여

만이다.

삼성화재는 “비만과 관련된 질병의 유병률을 낮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비만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체계적인 보장을 위해 새로운 담보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최경증·경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하는 표적약물 허가치료제를 신규 담보로 개발했다.

최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레캬비(레카네맵, Lecanemab)’이 등장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표적 치매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치매 보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맞춤형 치매 치료 신담보를 선보였다.

손보험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담보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올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을 획득한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흥국화재 뿐이다.

흥국화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담보 개발로 신규 보장 영역을 개척했다”며 “최경증치매 치료제 담보 개발로 민영보험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도 치매보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기존 치매보험을 개정하면서 치매에 대한 보장 기간을 종신까지 확대한 상품을 출시했다.

특약을 통해 요양진단비, 요양생활자금, 재가급여, 시설입소급여를 보장한다. 특히 바로보장형 상품의 경우 재가급여 등 주요 특약을 면책 없이 가입 즉시 보장한다.

흥국생명은 “치매와 간병에 보다 폭넓은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자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초고령화 시대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DJSI 월드 지수 편입

삼성화재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삼성화재는 글로벌 ESG 대표 평가 지표인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DJSI)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월드(World) 지수에 편입됐다고 19일 밝혔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지표다. 세계적인 권위의 미국 S&P 다우존스사와 스위스 로베코샘사가 공동 개발한 글로벌 ESG 평가 지수로 월드 지수는 상위 10%인 250여개 기업만 편입된다.

삼성화재는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최상위 등급인 월드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글로벌 ESG 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신한라이프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

신한라이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운용, 가족돌봄 지원, 정시퇴근 문화 정착 등이며 서류 및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임직원 인터뷰 등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신한라이프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2027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김주형기자

잠잠한 저축은행 연말 특판... 유동성 확보 집중

저축은행, 예금·적금 금리 내리막
신년 만기도래 중심 특판 가능성

연말이 다가왔지만 저축은행의 ‘연말 특판’이 잠잠하다. 저축은행이 최소한의 유동성만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분기 여신잔액이 소폭 증가했지만 수신 속도를 높일 단계는 아니란 입장이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금리는 연 3.38%다. 이번달에만 0.08%포인트(p) 하락했다. 그간 저축은행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연말, 연초에 특판 상품을 내놓던 것과 비교하면 소극한 행보다. 예금금리 상단은 연 3.61%로 연간 0.79%p 떨어졌다.

정기적금 금리도 내리막이다. 같은 날 기준 저축은행의 정기적금(1년물) 평균 금리는 연 3.45%다. 연간 0.12%p 하락했다. 통상 적금상품은 홍보 및 행

사성으로 출시한다. 정기예금 대비 높은 금리를 책정하며 상대적으로 평균 금리 하락 속도가 더디다. 적금금리가 떨어진 것은 저축은행이 자금 수선에 보수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한동안 연 4%대 정기예금은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대출 수요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시중 은행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저축은행 업황회복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을 중단한 만큼 리테일(소매금융)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저축은행은 2금융권의 대출 ‘풍선효과’도 일축했다. 저축은행이 개인 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는 데다 대출금리가 은행권 대비 연 5~6%p 가량 높은 만큼 수요가 전무하다는 것.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 인상과 저축은행 대출 수요 확대는 무관

하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유동성 확보와 여신잔액 확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PF 신규취급을 중단한 데다 리테일 수요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같은 정기예금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신년 특판 출시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유동성만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올 3분기 전국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135.84%다. 직전 분기(231.79%) 대비 101.95%p 하락했다. 단 법정기준 100% 대비 35.84%p 초과한 수치다.

일각에서는 수신금리 인하에도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만기도래 시기가 상이한 만큼 연초 특판을 기대할 수 있단 의견이다. 저축은행은 만

기도래 2~3개월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만기가 1~2분기에 집중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예적금이 등장할 수 있다.

만기 기간 분산 또한 신년 특판 출시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현재 저축은행은 수신금리 인하나 만기 기간 분산에 적잖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22년 4분기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연 6%를 웃도는 정기예금을 연말에 출시하면서, 정기예금의 경우 중복 가입 빈도가 낮은 만큼 평균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각 사별 자금포트폴리오에 따라 신년 특판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이 고금리를 고수하는 만큼 급격한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집값... 39주째 상승

이달 셋째 주 아파트값 0.01% ↑
매매수급지수는 9주째 떨어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9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9주째 하락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오르면서 39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마포구(0.02%→0.02%)가 공덕·아현동, 성동구(0.02%→0.03%)는 금호·옥수동, 종로구(0.01%→0.04%)는 무악·송인동 주요 단지, 용산구(0.04%→0.04%)는 한강로3가·이촌동 주요단지, 광진구(0.07%→0.04%)는 광장·구의동 정주

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07%→0.06%)는 서초·반포동 주요단지, 강서구(0.03%→0.03%)가 등촌·염창동 역세권, 강남구(0.07%→0.04%)는 대치·개포동 대단지, 송파구(0.02%→0.04%)는 방이·송파동, 영등포구(0.04%→0.03%)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11월 전용면적 59㎡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매매가격(13억5000만원) 대비 2억원 상승했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선수기자촌2단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

83㎡가 22억원에 거래되면서, 1개월 만에 1억원 올랐다.

1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0으로 전주(98.6)보다 0.6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셋째 주부터 9주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단지에서는 매수문의 꾸준하고 상승거래 발생되고 있다”며 “다만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도전·변화 DNA로 LG 없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 세우자”

구광모 LG회장 2025 신년사

데이원 정신, 도전·변화 강조
ABC 혁신으로 고객가치 창출
임직원들도 신년사 영상에 등장
차별화된 가치로 지속가능 약속

구광모 LG 회장이 2025년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도전과 변화의 DNA’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19일 전 세계 27만여명의 LG 임직원들에게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며 “우리가 다져온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세우자”고 밝혔다.

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27만여 임직원에게 “미래 먹거리는 AI·바이오·클린테크” 메시지

구광모 회장은 “LG의 시작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9일 전 세계 27만여명의 LG 구성원들에게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을 이메일로 보냈다. /LG

기 위한 것이었다”며 “LG의 ‘데이원(DAY 1)’ 정신에는 고객을 위한 도전과 변화의 DNA가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삶에 즐거움(樂)과 기쁨(喜)을 드리기를 위한 LG의 도전은 과감한 혁신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영역에서 최초, 최고의 역사를 만들고,

고객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 차별적 가치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고객가치’의 중요성도 짚었다. 구 회장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으며 때론 익숙한 방식을 벗어나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든 많은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LG가 되었듯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릴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세우자”라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LG의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를 지목했다.

구 회장은 “고객의 시간 가치를 높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AI와 스마트솔루션, 건강한 삶과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바이오, 클린테크까지 그룹 곳곳에서 싹트고 있는 많은 혁신의 씨앗들이 미래의 고객을 미소 짓게 할 반가운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임직원들도 신년사에 참여...사업별 미래 가치 공유

이번 신년사 영상에는 LG 구성원들

이 직접 등장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차별적 가치를 공유했다.

LG전자 생활가전(HS)사업본부 홍성욱 책임은 “AI가 적용된 가전이나 로봇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나를 알아서 케어해주는 스마트홈을 만들고 있다”며 “집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줄여주고 더 즐겁고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LG화학에서 항암 신약을 개발 중인 조형진 연구위원은 “효능이 좋으면서도 안전한 치료제를 개발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기대수명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신년사 영상은 올 초 새롭게 단장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저층부 공용공간인 ‘커넥트윈(Connectwin)’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커넥트윈은 ‘트윈타워를 연결한다’(Connect Twin)와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위한 연결’(Connect to Win)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美서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기아 K4 ‘2024 IIHS TSP’ 추가 아이오닉·코나 등 총 22개로 늘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지난 17일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기아 ‘K4 2025년형’이 ‘2024 IIHS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에 새롭게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K4는 기아가 북미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준중형 세단으로 최근 ‘2025 북미 올해의 차’ 승용 부문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데 이어 TSP에도 선정되며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K4의 TSP 선정으로 올해 현대차그룹에서 TSP+ 또는 TSP를 받은 차종은 현대자동차 9개, 제네시스 8개, 기아 5개 등 총 22개로 늘었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그룹 기준 최다 선정이다.

브랜드 기준으로도 현대차·기아는 대중 브랜드 중 각각 2위와 6위를 차지했으며,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 1위에 올랐다.

올해 TSP+ 등급에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코나 ▲투싼 등 현대차 4개 차종과 ▲G90 ▲G80 ▲G80 전동

화 모델 ▲GV80 ▲GV70(2025년형) ▲GV70 전동화 모델 ▲GV60 등 제네시스 7개 차종, 기아 ▲텔루라이드 1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다.

TSP 등급에는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쏘나타 ▲팔리세이드 ▲싼타페 ▲싼타크루즈 등 현대차 5개 차종과 제네시스 ▲GV70[1](2024년형) 1개 차종, ▲K4 ▲EV9 ▲스포티지 ▲쏘렌토 등 기아 4개 차종이 선정됐다.

IIHS는 충돌 평가에서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매긴다. /차현정기자



LG전자, 세계 최초 ‘무선·투명 올레드 TV’ 출시

LG전자가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를 글로벌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 현존 가장 진화한 TV 기술을 집약한 이 제품은 77형(대각선 길이 196cm)·4K(3840×2160) 해상도 올레드의 압도적 화질과 투명 스크린, 무선 AV 송·수신 기술을 모두 적용했다. 제품 출하가는 5만9999달러(8700만원)다. /LG전자

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념 스토어 이벤트 성료

기아가 프로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기념하며 고객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기아는 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 정규리그 및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기념해 진행한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 경품 차량 증정식을 브랜드 체험관 ‘Kia360’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국 기아 지점과 대리점, 드라이빙센터를 방문한 약 4만여명의 고객 참여로 진행됐으며 공정한 경품 추첨을 위해 부정 유입이나 중복 참여 등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을 거쳤다. 이벤트 경품은 ▲더 2025 EV9(1명) ▲더 뉴 EV6(1명) ▲더 기아 EV3(1명) ▲기아 타이거즈 24 어센틱 휴 유니폼(50명) 등이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울산급 호위함 2척 건조 본계약

방사청과 8391억 규모 계약

한화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배치(Batch)-IV’ 1, 2번함의 건조를 본격화한다. 울산급 ‘배치-III’ 5, 6번함에 이은 수주로 ‘합정 명가’로서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과 2030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울산급 배치-IV 1, 2번함 건조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8391억 원에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80년대부터 사용해 온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4단계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으로 모두 6척이 건조될 울산급 배치-IV는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하는 호위함의 미래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크다. 울산급 배치-III 5, 6번함에 이은 후속함으로 배수량과 외형의 변화는 없지만, 울산급 배치-IV는 ‘스마트 호위함’으로 이전 호위함과는 차별화된 사실상의 ‘풀체인지’ 모델이나 다름없다. /차현정 기자

울산급 배치-IV는 성능개량 장비인 전투체계와 무장 4종, 신규장비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II와 전자전장비-II의 체계통합이 이뤄진다. 또한 병력자원이 감소할 미래 작전환경에서 인력절감을 고려한 함정설계는 물론, 승조원의 운용·거주 편의성을 향상시킬 방안도 적용된다. 이 밖에 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관제체계와 함께 고도화된 무인기 위협 대응 능력도 갖췄다.

한화오션은 울산급 배치-III 5, 6번함에 이어 배치-IV 1, 2번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력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00년 이후 새로운 전투개념이 도입된 첨단 국산 구축함 건조사업인 KD X-I, II, III 사업의 전 라인업을 건조한 유일한 업체인 한화오션은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구축함을 가장 많이 인도한 업체다. /차현정 기자

한화큐셀, ‘탠덤 셀’ 최고 발전효율 기록

M10 탠덤 셀, 발전 효율 28.6%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가시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양산에 적합한 규격의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셀(탠덤 셀)을 자체 개발, 세계 최고의 발전효율을 기록하며 차세대 태양전지의 최초 상용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섰다.

한화큐셀은 직접 개발한 M10 사이즈 탠덤 셀이 28.6%의 발전효율을 기록해 국제적 인증 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SE)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용 소면적(1cm²)이 아니라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듈에도 적용이 가능한 대면적 M10(330.56cm²) 규격의 탠덤 셀을 제작해 제3자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은 세계 최초다.

한화큐셀이 연구개발 중인 탠덤 셀은 서로 다른 영역 대의 빛을 흡수하는 실리콘 셀과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적층시켜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다. /차현정 기자



한화큐셀이 자체 개발 및 제작한 탠덤 셀 /한화솔루션

고효율 탠덤 셀의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경제성을 대폭 높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23~24% 수준의 발전효율을 지닌 시중 실리콘 모듈 대신 26~27% 수준의 발전효율을 지닌 탠덤 모듈을 설치하면 약 15%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는 온도와 일사량 변화에 따른 출력 변화 폭이 작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탠덤 셀은 더운 기후나 흐린 날씨에도 실리온 단일 셀에 비해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향후 한화큐셀은 탠덤 셀과 모듈의 성능 및 장기신뢰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161조 XR 시장’ 선점 경쟁... 삼성, ‘무한’ 도전 시작됐다

삼성-메타-애플 ‘3파전’

삼성, 내년 하반기 XR 기기 출시
구글·퀄컴과 ‘프로젝트 무한’ 공개
메타,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발표
애플, 내년 비전 프로 업그레이드

메타, 애플이 선두로 나선 확장현실(XR) 시장에 삼성전자와 구글이 함께 참전키로 하면서 시장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XR은 사용자가 시각·청각·움직임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주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물리적 제한을 넘어 업무, 학습,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건강관리 등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 XR 관련 조직 강화 ‘구글과 XR 헤드셋 출시’

19일 시장조사 업체 마켓앤마켓츠에 따르면 XR 시장은 2022년 313억달러(약 44조5700억원)에서 2028년 1115억달러(약 161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먼저 시장에 진출한 메타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연이어 신제품을 공개하며 시장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구글, 퀄컴과 협업해 내년에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한다. 멀티모달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메타 ‘퀘스트’, 애플 ‘비전 프로’와 경쟁하는 차세대 폼팩터 혁신을 예고했다.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XR 언락’ 행사에서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오른쪽)이 사미르 사맛 구글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 부문 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XR 언락’ 행사를 개최하고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이를 탑재할 최초의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無限)’을 소개했다.

무한은 구글과 삼성전자, 퀄컴이 개발한 XR 특화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XR이 탑재되는 첫 번째 기기다. 무한에는 AI 어시스턴트(비서) ‘제미니’가 탑재된다. 제미니는 이용자와 대화하며 계획 수립, 정보 검색 등의 작업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XR 헤드셋의 공개를 시작으로 XR 관련 조직을 강화할 전망이다. 애플의 ‘비전프로’와 달리 편의성을 한층 높여 XR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XR 헤드셋의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 삼성 발표 직후 업데이트 공개... 애플은 소니와 ‘맞손’

이에 따라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와 퀘스트를 각각 출시한 애플, 메타플랫폼(메타)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삼성전자가 XR기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메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사 스마트 안경 ‘레이벤 메타’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구글이 XR 시장에 재진출한다고 전격 발표한 뒤 나올 만해 이뤄졌다. 삼성전자가 구글과 협력해 XR 기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 9월 연례 최대 행사인 ‘커넥트 메타’에서 업데이트를 예고한 지 석달 만이다. 새로 추가된 대표적 기능은 인공지능(AI) 비디오 분석이다. 레이벤 메타의 AI 비서에 비디오 기능이 추가돼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해도 AI가 바로 대답할 수 있다.

또 다른 기능은 실시간 언어 통역이다. 레이벤 메타를 쓰고 말하면 원하는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한다. 상대방의 언어 역시 사용자의 모국어로 바꿔준다.

애플은 비전프로의 부진한 성적을 돌파하기 위해 소니와 손잡았다. 앞서 애플은 비전프로를 통해 XR 시장을 선점했지만 부진한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미국 내 비전 프로 판매량은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17만 대로 추산된다. 기대 판매량인 30만~40만 대를 밑돈 것이다. 구글은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선보였지만 높은 가격과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2015년 단종시켰다. 애플 ‘비전프로’는 600g이 넘는 무거운 무게와 고가의 가격(최소 499만원), 킬러 앱의 부족 등을 지적받으며 판매량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애플도 소니와 협력해 업데이트된 비전프로를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업데이트 기능에는 비전 프로 헤드셋에 증강현실(VR) 게임 컨트롤러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버추얼리얼리티 2(PSVR)용 컨트롤러를 비전프로에서 쓸 수 있는 협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스토어에서 PSVR2 컨트롤러만 별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모델이 ‘U+키즈폰 무너 에디션’을 소개하는 모습. /LGU+

LGU+

30만원대 AI 키즈폰 ‘무너 에디션’ 선보여

LG유플러스는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키즈 전용 스마트폰 ‘U+ 키즈폰 무너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LG유플러스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생을 위해 내놓은 8번째 키즈 전용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16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LG유플러스의 대표 인기 캐릭터 ‘무너’가 바탕화면과 테마에 적용됐다. 제품 출고가는 36만5200원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처음으로 이번 키즈폰에 ‘AI 안심케어’, ‘AI 학습놀이’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했다. 키즈폰을 활용해 자녀의 안전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안심케어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부모에게 AI 분석 리포트와 맞춤형 이용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는 유해 콘텐츠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어 이용자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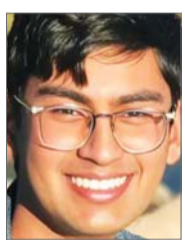
AI 학습놀이 기능은 LG유플러스의 키즈 메타버스 플랫폼 ‘키즈토피아’를 활용해 아이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AI 캐릭터와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구남영 기자

AI 시대, 데이터 수집 윤리적 ‘딜레마’

오픈AI 저작권 문제 내부 고발자 사망 저작권 침해 등 지속되는 법적 분쟁 저작권 명확화·합성 데이터 한계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선두 주자 오픈AI의 내부 고발자가 사망하면서 AI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 관련 저작권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미국 지역 매체 머큐리뉴스 등에 따르면 오픈AI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전직 연구원 수치르 발라지(Suchir Balaji·사진)가 지난 11월 26일 샌프란시스코 자택



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과 검사관실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발라지는 지난 10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오픈AI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오픈AI에서 202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술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재직 중 챗GPT 출시를 앞두고 개발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발라지에 따르면 오픈AI는 전사 소프트웨어 ‘위스퍼’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GPT-4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

오픈AI 측은 수치르 발라지의 사망에 대해 “오늘이 엄청나게 슬픈 소식을 접하게 돼 비통하다”면서도 데이터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정 사용 및 관련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만 일축했다.

오픈AI는 그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를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작가, 프로그래머, 언론사 등으로부터 잇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왔으며, 이러한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뉴욕타임스도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I 저작권 문제는 오픈AI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등 다른 기술 기업들도 직면하고 있다. 구글은 AI 이미지 생성기 ‘Imagen’ 개발 과정에서 시각 예술가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AI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카카오톡, 19개 언어번역 정식 업데이트

‘실험실’ 통해 맞춤법도 교정

카카오톡이 맞춤법 교정 기능과 외국어 번역 기능을 정식으로 추가했다. 카카오는 지난 18일 카카오톡 11.3.0 버전(모바일 앱 기준)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맞춤법 교정과 번역 기능은 지난해 카카오톡 내 새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실험실’ 기능을 통해 제공돼왔다. 앞으로 카카오톡 이용자 누구나 메시지 입력란 하단에 위치한 ‘맞춤법’, ‘번역’ 아이

콘을 통해 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메시지 입력 후 전송 전 ‘맞춤법’ 아이콘을 클릭하면 입력란 내 문장의 철자, 띄어쓰기 등을 자동으로 교정한다. 교정 후 ‘입력창에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송된다.

번역 기능도 메시지 입력 후 ‘번역’ 아이콘을 클릭하면 영어로 자동 번역된 내용을 볼 수 있다. 옵션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19개국 언어 번역을 지원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사용량 분석해서 맞춤형 요금제 추천”

과기부, ICT 규제 특례 5건 지정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사용량을 분석해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는 통신사가 보관 중인 이용자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통신 사용 데이터를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업체는 분석을 거쳐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야놀자

포인트 제휴 공동마케팅

CJ ONE 회원, 야놀자 포인트 혜택

CJ올리브네트웍스가 야놀자와 서비스 제휴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야놀자 플랫폼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사의 기술과 역량을 융합하여, 멤버십 서비스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양사 회원들의 혜택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사의 주요 협력 내용은 CJ ONE 오프라인 주요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 시, 적립된 포인트만큼 야놀자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될 예정이다. 또한 야놀자 플랫폼에서도 CJ ONE 포인트 사용으로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해진다.

CJ ONE의 B2B 서비스인 포인트바우처 역시 사용처에 야놀자 플랫폼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양사의 마케팅 시너지는 물론 회원들의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INTELLIGENTLY CONNECT

인공지능에서 연결지능으로

단순히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AX로 고객의 일상에 혁신을 더하기 위해

유플러스는
사람과 기술을 지능적으로 연결하여
당신에게 딱 맞는 연결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통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부터
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유플러스만의 AX 혁신은 계속됩니다

**GROWTH LEADING
AX COMPANY**

LG U+

ixi

ixi-GEN



증권사, 美 주식 열풍에 '방긋'... '서학개미 모시기' 경쟁

삼성증권 신규·휴면고객 수수료 ↓
토스증권 내년말까지 수수료 0.1%

키움증권 美주식 증정 행사 연장
신한투자증권 로이티뉴스 번역

메리츠증권 국내·美 주식 수수료
달러 환전 수수료 2026년까지 무료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권사가 미국 주식 투자자를 환영하는 모습.

미국 주식 투자 열풍으로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규모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관련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거래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증권사 24곳의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은 총 9187억원으로 전년 동기(5417억원) 대비 70% 증가했다. 이는 국내 증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관심을

돌린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수수료 수익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자산 규모가 3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 계좌 수도 47% 증가한 53만 개에 달했다. 올

해 6월 30조원이었던 미래에셋증권 해외 주식 잔고도 반년 만에 40조원까지 확대됐다.

토스증권 역시 주식모으기 수수료 무료화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이벤트에 힘입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해외주식 거래 대금이 30조54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국내주식 30조원일 때 해외주식이 7조5000억원이면 증권사의 국내외 수수료 손익 비중은 1대 1이 된다”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수수료 금액이 국내주식 수수료를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확대 가능성에 따라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삼성증권은 연말까지 해외주식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토스증권은 내년 말까지 거래 수수료를 0.1%(제비용 별도)로 낮추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미국 주식을 처음 거래하거나 3개월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주식 증정 이벤트를 연장하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에서 간편하게 미국주식 배당금을 확

인하고 최적의 배당주를 찾을 수 있는 ‘미국주식 배당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이티뉴스 번역 및 요약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메리츠증권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2026년까지 전면 무료화하면서 이벤트 시행 25일 만에 예약자산이 1조원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수수료 이벤트뿐 아니라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기획하고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며 “해외주식 거래 대금 확대가 증권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에도 증권사 간의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계엄 여파로 동력 잃은 밸류업 ETF ‘시름’

밸류업 ETF 순자산 ‘5043억’으로 줄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계엄 이후 2.55% ↓
尹 직무정지로 투심 하락, 투자자 이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총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보수’를 내세웠던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자금이 대거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2월 12~18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인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에서 약 1533억원 가량의 자금이 유출됐다. 이외에도 신한자산운용의 ‘SOL 코리아밸류업TR’에서 10억원 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차이는 상당하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저 수수료(0.008%) 전략을 펼치며 투자자를 유입했다. 실제로 11월 4일 상장 당일 TIGER 코리아밸류업의 순자산 총액은 2040억원으로 12개의 코리아 밸류업 ETF 중 가장 높았다. 계엄 사태 직전이었던 12월

3일까지도 3129억원까지 상승하면서 밸류업 ETF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4일부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8일 기준 1233억원으로 급락했다. 약 2주간 순자산이 60.59%나 빠진 셈이다.

다만 밸류업 ETF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다. 오히려 상장 당일이었던 11월 4일 1130억원에서 18일 2017억원으로 올라섰다. 상장 첫날 삼성자산운용도 낮은 금액으로 접근하기 위해 보수를 기존 0.09%에서 0.0099%로 인하했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보다는 높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KODEX 코리아밸류업’ ETF의 총보수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동일하게 0.008%로 인하하면서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밸류업 ETF의 선두가 바뀐 것도 13일이다.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의 순자산 총액은 전날 2005억원에서 1799억원으로 감소했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1996억원에서 2005억원으로 증가했다.

임태혁 삼성운용 ETF운용본부장 상

무는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정통 패시브 상품에 맞게 기초지수와 연동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만큼 이번엔 업계 최저 수준인 0.008%로 총보수를 인정한 효과가 코리아밸류업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1개월(약 2~4주) 대비로는 대부분의 밸류업 ETF에서 자금이 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윤 정부가 연초부터 주도해 왔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탓으로 해석된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12개 밸류업 ETF의 순자산 총합은 지난 3일 약 7680억원에서 18일 기준 약 504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12·3 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2.55% 떨어졌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밸류업이 동력을 잃고, 밸류업 종목에 대한 투심도 하락했다”며 “밸류업 ETF에서도 투자자들이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밸류업 ETF를 출시한 운용사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NH투자증권, ROE 12% 등 밸류업 계획 공시

(자기자본수익률)

주주환원 정책, PBR 1배 달성 목표

NH투자증권이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이는 키움·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증권사 중 세 번째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자기자본수익률(ROE) 12% 확보, 예측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핵심사업(IB/WM/운용)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자본수익률(COE 10% 수준)을 충족하고 신사업 및 기존사업(홀세일/OCIO/자회사 등)의 수익을 더해 목표 ROE 12%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핵심사업 부문간 연계를 통해 시장성장을 초과하는 고성장장세체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IB부문은 전통 기업금융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며, 패키지딜(인수금융+공개매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자문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부동산 PF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WM부문은 이러한 IB 경쟁력을 레버리지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NH투자증권

로 활용해 초부유층(UHNW)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신규고객 확장 및 해외주식 등 성장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운용부문은 WM 성장에 기반한 운용자산 규모 확대 및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한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기본배당 500원의 최소 배당수익을 보장하며, 사업성과를 고려한 추가배당을 통해 업계 최고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자본효율 최적화를 병행한다.

윤병은 NH투자증권 사장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kova@

신한자산운용, 부동산 개발 에쿼티 펀드 조성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발맞춰
‘신한RE밸런싱 펀드’ 조성

신한자산운용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에 발맞춰 자기자본 비율 확충의 역할을 하는 ‘신한RE밸런싱 펀드’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투자자로는 신한은행과 SK디앤디가 참여할 예정이며, 투자예정금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신한자산운용이 조성하는 부동산 개

발 에쿼티 블라인드 펀드는 ‘신한RE밸런싱 펀드’로 구조적 개선을 의미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과 부동산(Real Estate)의 합성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개발사업의 건전성을 개선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정부당국의 부동산 개발사업 건전성 개선 방향의 일부인 개발사업 자기자본 확충과 관련된 수요

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이번 ‘신한RE밸런싱 펀드’의 공동투자의 배경이다. 이 펀드를 통해 세 기관은 향후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자산운용 측은 “신한은행 및 국내 상장 디벨로퍼인 SK디앤디와의 협업을 통해 풍부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대신증권, 10번째 종투사 지정 ‘눈앞’

금융위 최종 의결만 남아

대신증권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눈앞에 뒀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신증권에 대한 종투사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금융위 최종 의결뿐이다. 금융위 회의는 연내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까지 마치면 대신증권은 10번째 종투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나면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진다. 헤지펀드에 자금 대출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PBS)와 외화 일반 환전 업무도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9개사다.

/원관희 기자

미래형 변전소로 지역 랜드마크 추진 공원·문화시설 등 주민친화형 조성

한전, 복합변전소 청사진 제시
외관 개선·친환경 전력설비 도입
전자파 우려 등 부정적 이미지 개선
김동철 사장 “민원·갈등 최소화”

한국전력이 향후 변전소를 건설할 때 사육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 변전소로 건설하기로 했다. 변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한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미래형 변전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변전소와 사육을 개별 건설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육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변전소(가칭)로 건설하고, 미관을 개선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설비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신뢰를 강화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전은 “변전소에 한전 직원이 상시 근무하게 되면 설비운영 효율성 제고,



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자리잡은 한국전력 사육. /뉴시스

전자파 불안감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지역의 주요 원인인 변전소 건설 반대 민원에도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전소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변전소 부지 내에 공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을 필수 확보한 주민친화형 변전소

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전소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공존하는 일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변전소가 미관을 해친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독특한 조형미로 주목받는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변전소가 곧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특히, 인구가 많고 홍보효과가 큰 지역부터 랜드마크형 변전소 모델을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이제는 변전소를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전은 변전소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전 본연의 업무인 전력망 적기 건설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올해 외국인투자 330억 달러 ‘역대 최대’

산업부, ‘외국인투자전략회의’ 개최

올해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안덕근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 의집에서 주한외국상,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올해 들어 4번째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투자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 330억 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해 역대최대였던 작년 연간실적(327.1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140.1억달러, +29.3%)가, 투자유형별로는 생산·고용 기여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계엄 이후 첫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255.7억달러, +17.5%)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60.6억달러, +471.7%)·중국(55.4억달러, +277.3%) 발 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62.3억달러, -32.9%)·미국(45.7억달러, -23.5%)발 투자는 감소했다.

안 장관은 “특히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해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절반 줄인다

정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2030년까지 50% 이하 감축 목표
기술개발에 3년간 25조 이상 투입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 올해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품목의 국

내생산을 지원하는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급망 위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 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통·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원 수준을 장기·지속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그간 소관부처별 추진해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안보 품목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했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재장애인 취업지원 위한 공공기관 협력

근로복지공단,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산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약 400여명 이상 중증 산재장애인이 민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중심 교육 운영으로 자격 취득이 어렵고, 취업에서도 소외되어 산재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과정 개설 요구가 많았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가진 고유영역의 전문성으로 산재장애인의 자격 취득과 양질의 일자리 알선에 집중함으로써 직업 복귀와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장애인을 선발하여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한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실무중심 교육과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 5개 지역에서 실내건축, 소방설비, 사무자동화 등 취업수요가 높은 장애인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의무고용사업장과 연계해 양질의 취업을 알선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장애인의 건강한 직업 복귀를 위한 공공기관 협업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건축 제한 ‘불합리’

권익위, ‘보호지구 완화’ 권고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층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권익위는 해당 구역의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35년간 연안 평균 해수면 10.7cm 상승

해수부,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
평균 해수면 매년 3.06mm씩 높아져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지난 35년간 10.7cm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게다가 기후변화 탓에 최근 10년 사이 해수면 높이는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19일 발표한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난 35년(1989~2023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6mm씩 높아져 총 10.7

cm가량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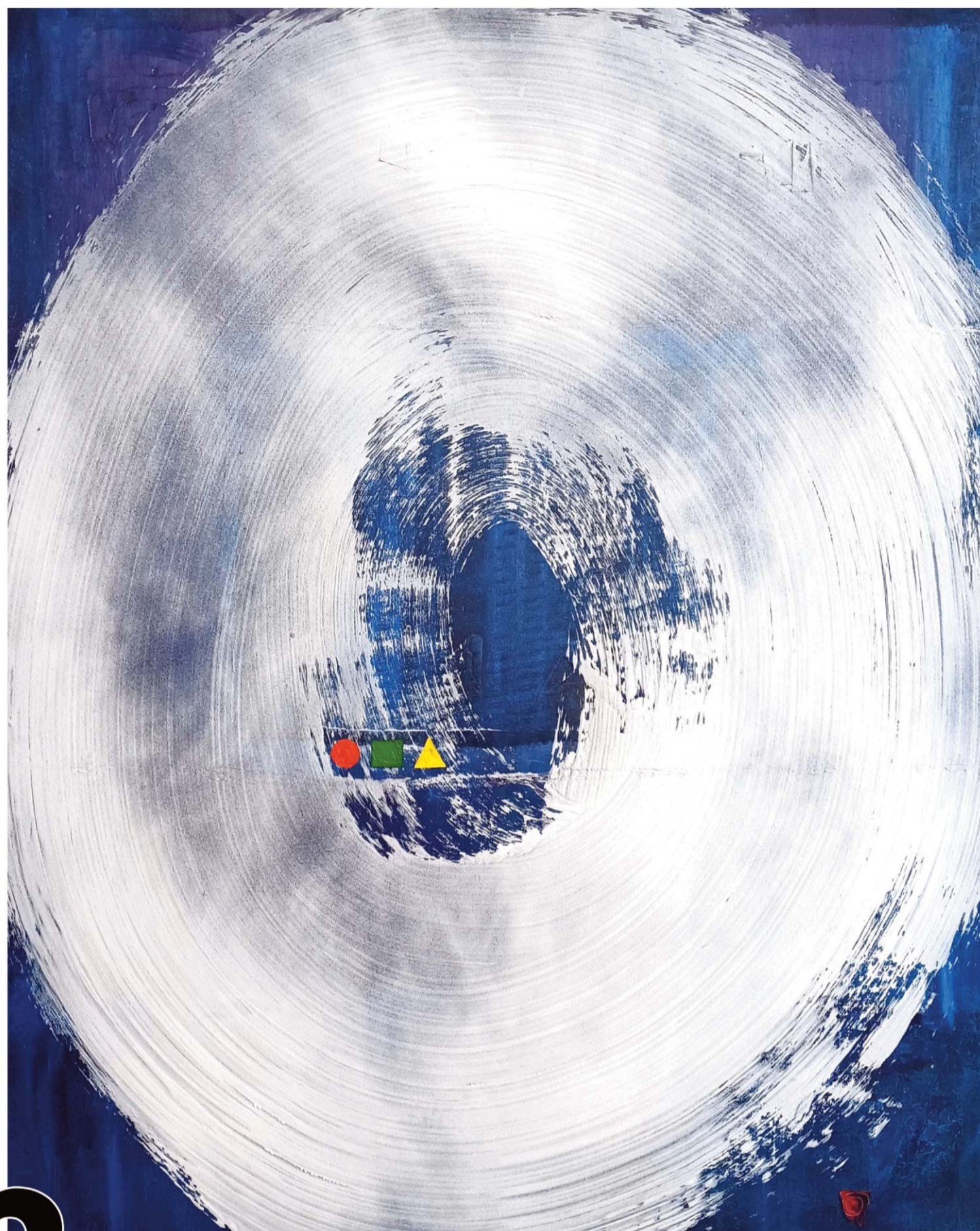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과거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수집 자료를 분석해, 2009년부터 매년 해수면 상승 속도를 산정해 발표해 왔다.

올해 조사원에서 발표한 최근 35년간 상승 속도(연 3.06mm)는 작년에 발표한 34년간 평균 상승 속도(연 3.03mm)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이 연 3.46mm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서해안(연 3.20mm), 남해안(연 2.74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경북 울릉이 연 5.11mm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충남 보령, 강원 속초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수면이 과거 10년간(2004~2013년) 약 2.8cm 상승(연 2.79mm)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약 3.9cm(연 3.88mm) 올라, 같은 기간 대비 최근 10년간 1.1cm가량 더 많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의 높이가 최근 10년 새 더 빠르게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Solo Exhibition



Shin Eun Young

신은영 개인전

2024. 12. 18 (수) ~ 12. 24 (화)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 4F



고려대·연세대 입시 수시전형 최초합격자 46.1% 등록 포기

합격자 4854명 중 2236명 등록포기
지난해 보다 5.5%p 늘어난 수시
의대정원 확대에 자연계열서 늘어
인문계열서도 48.7% 등록 안 해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전형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최초 합격자 46.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영향으로 자연계 복수합격자 학생들의 이탈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입시에서는 중복합격으로 인한 추가합격이 과거보다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8일 마감된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등록 결과 고려대와 연세대 최초 합격자 4854명 중 223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해(1927명, 40.6%)보다 5.5%p 늘어난 수치다.

최초 합격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에 등록을 포기한 것은 다른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 후 등록을 했다는 의미다. 수시모집은 총 6곳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연세대는 최초 합격자 47.5%에 해당하는 103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최초 등록자 중 포기자는 784명을 36.4%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 31.8% 늘었다.

고려대는 최초 합격자 44.9%인 1203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44.1%(1143명)보다 60명 증가해 5.2% 늘었다.

두 대학의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48.6% (지난해 43.2%), 43.6% (지난해 46%)의 최초 등록자가 등록하지 않았다.

자연계 학과별로 살펴보면, 고려대는 ▲전기전자공학부 65.2% ▲물리학과 64.5% ▲반도체공학과 60.0% ▲차세대통신학과 60.0%가 등록을 포기했고, 연세대에서는 ▲수학과 72.7% ▲첨단컴퓨팅학부 71.6% ▲화공생명공학부 69.8%가 등록을 안 했다.

자연계열에서 등록포기자가 늘어난 것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문계열에서도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가 늘어났다. 인문계열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 모두 47.7%가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37.8%)보다 증가했다. 인문계열 학과를 보면, 고려대 ▲철학과 68.0% ▲정치외교학과 67.4% ▲경제학과 63.8%에 해당하는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고, 연세대는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 65.4% ▲교육학부 62.1% ▲경영학과 60.0%가 등록을 안 했다.

의대에 불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도 작년보다 늘었다. 2025학년도 연

세대 의예과 수시 최초 합격자 중 41.3%인 26명이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 30.2%(19명)보다 증가했다.

이는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이 인문계열로 교차지원한 뒤 중복합격하면서 포기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세대 치대의 경우 수시 최초 합격자 47.1%에 해당하는 16명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포기율 14.7%(5명)보다 3배 증가했다.

고려대 의예과도 수시 최초 합격자 55.2%(37명)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50.7%(34명)보다 높은 수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학계열에서도 치대에서 의대로, 약대에서 의대로, 한의대에서 의대로 상당수 중복합격자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연세대, 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상황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전반에 걸쳐 추가합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각 대학들은 추가 합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시 추가합격 발표횟수, 합격자 전화 통보 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험생들은 추가합격자 전화를 못 받을 시 불합격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학년도 연세대 고려대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포기 상황)

대학	2024			2025		
	모집인원	최초 합격자 등록 포기 인원	비율	모집인원	최초 합격자 등록 포기 인원	비율
연세대	2,153	784	36.4%	2,174	1,033	47.5%
고려대	2,593	1,143	44.1%	2,680	1,203	44.9%
계	4,746	1,927	40.6%	4,854	2,236	46.1%

/종로학원

내년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해제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 성과 있었지만
경기침체 요인 등 상권 활력 저하
교통량 변화도 미미... 목적 상실"
해제 후 안전시설 보완 등 예정

서울시는 내년 1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의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졌다.

시는 "보도폭 확대, 차로 축소, 광장 조성으로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후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상권 활력이 저하돼 상인들이 해제를 요청했다"고 지정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약 2년간의 현장 조사, 상권·교

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전문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 부족한 교통 수요 분산 효과,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이 확인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전용지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운영 전후의 차량 통행 속도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는 목표로 하나, 연세로에서는 큰 효과가 없어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전용지구 운영으로 상권 매출도 하락했다. 시가 연세로 내 65개 업종, 700여개 가맹점의 2023년~2024년 동월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시범 해제 기간 중 전체 매출액은 6.3%, 점포당 매출액은

6.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행 친화 정책이 유지될 수 있게 ▲안전 강화 ▲교통소통 관리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는 신촌역 2·3번 출구 앞과 연세로 교차로 양방향 진입부 보·차도를 포장해 시인성을 높이고, 교차로 신호·횡단보도·앉음석·블라드·석재 화분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해제 후 약 6개월간 모니터링을 시행해 교통량과 차량 통행 속도를 분석, 연세로 교차로의 신호를 조정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도로 전체를 보행자를 위해 개방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0@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서울시

코레일·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담당

사업비 약 14.3조... 7대 3 비율 시행

서울시는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SH공사는 실시 계획 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총사업비는 약 14조3000억원이며,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 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레일은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

추진, 토양 오염 정화, 문화재 조사, 사업 구역 토지 공급 등을 맡는다. SH공사는 기본 및 실시 설계, 토지 보상(국공유지·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를 담당한다.

시는 내년 하반기 실시 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 시설 공사를 시작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금번 사업 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 융복합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영유학교 시범사업 성과 공유

운영 사례 공유, 발전 방향 모색
2부 행사, 유튜브 통해 참여 가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4 영유학교 시범사업(가칭)' 시범 운영기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부로 이뤄진다. 1부는 유보통합 업무관계자, 2부 행사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2부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2024(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경과 발표 ▲시범사업 실천 사례 공유 ▲육아정책연구소 기초강연 ▲시범운영기관 교원·학

부모·시범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유보통합 이상적 모델 현장 구현을 위해 유치원 3곳, 어린이집 4곳 등 총 7곳의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은 ▲충분한 운영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서울시 관내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지역사회 협력 구축 ▲영·유아 교사 역량 강화 ▲교육·돌봄 환경 개선 ▲영유아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현진 기자

청송군,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선정

환경부 공모사업... 국비 4억 확보

청송군은 2025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생물 다양성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청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성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일대의 지방도 선형 개량 과정에서 폐도부지로 방치

된 공간을 복원하여 ▲생태모텔숲, ▲밀원초화원, ▲조류유인숲,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생태습지를 만들어 생태교육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생물서식처 복원과 습지 조성을 통해 단절된 연접산 산림생태계를 연결하고, 신성리 공룡발자국 지질명소를 방문하는 유·동·동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송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흑백요리사 ‘동파육’ 맛보고, 오징어게임 체험해 보세요”

현장르포

컬리푸드페스타 2024

‘모두를 위한 컬리크리스마스’ 주제 128개 파트너사 등 총 400여곳 참여 독일 슈톨렌, 이탈리아 파네토네 등 컬리베이커리존에 디저트들 마련



1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르웨스트에서 열린 컬리 푸드페스타 2024 방문객들이 다양한 F&B 브랜드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컬리 푸드페스타 2024 방문객들이 다양한 F&B 브랜드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내부는 작은 크리스마스 마을을 연상케 했다. 컬리가 개최한 ‘컬리푸드페스타 2024’는 시식, 체험, 이벤트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연말 분위기를 가득 담은 행사였다.

19일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연말 오프라인 미식 축제인 ‘컬리푸드페스타 2024’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모두를 위한 컬리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열린 첫 번째 컬리푸드페스티벌 행사 성

원에 힘입어 이번 행사 규모를 약 두 배로 확장했다는 게 컬리 측 설명이다.

행사에는 간편식, 메인 요리, 수산물, 축산물, 주류, 샐러드, 베이커리, 식료품, 커피 등 다양한 제품군이 준비됐다. 컬리 브랜드를 비롯해 128개 파트너사와 230여 개 식음료 브랜드가 참여했다.

특히, ‘컬리브랜드존’은 컬리의 식재료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

으로 주목받았다. 빵과 디저트 위주의 상품군이 배치된 ‘컬리베이커리존’에서는 독일의 슈톨렌, 이탈리아의 파네토네와 광도르, 프랑스의 부쉬드노엘 등 전 세계 크리스마스 디저트들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무엇보다 행사장은 맛과 재미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다. 중화요리 브랜드 ‘차오차오’는 셰프들이 직접 행사장에 참여해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로 화제가 된 동파육과 차오엔 소스를 활용한 요리 과정을 선보였다. 셰프들의 현장 요리를 보기 위해 몰려든 방문객들로 부스는 북적였다.

참여형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건강식품 브랜드 ‘바름’의 룰렛 이벤트는 많은 방문객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오후기는 피자 시식과 함께 진행한 퀴즈 이벤트로 상품을 증정하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 이벤트를 선보이는 곳도 있었다. CJ제일제당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테마로 행사장 외관을 꾸미고, 행사 참여자가 직접 훔칠리는 돈을 잡아 상품을 받는 이색적인행사를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은 컬리와 공동으로 기획한 ‘제일마켓컬리’ 상품을 주력으로 선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이모 씨는 “먹고 즐길 수 있어 더 좋다.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퀴즈를 풀고 상품을 받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재밌다”고 말했다.

최재훈 컬리 최고커머스책임자(CC O)는 “고객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컬리푸드페스타는 고객이 자신만의 취향을 찾는 경험을 오프라인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했다”며 “컬리와 128개 파트너사가 함께 만든 연말 축제의 장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풍성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포카리·나랑드·오란씨 등 100원씩 인상

동아오츠카, 제품가격 평균 6.3%↑ 데자와 캔은 유지, 이카리아는 인하

동아오츠카는 지속적인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자사 제품 가격을 평균 6.3%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카리스웨트 250ml 캔은 편의점 기준 1600원에서 1700원으로 6.3% 인상되며, 620ml 페트는 2500원에서 2600원으로 4.0%, 1.5L 페트는 3800원에서 3900원으로 2.6% 인상된다.

나랑드사이다 250ml 캔은 1400원에

서 1500원으로 7.1%, 350ml 캔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9% 상승하며, 포카리스웨트와 마찬가지로 각 100원씩 인상된다.

오란씨와 데미소다도 동일하게 제품별로 100원씩 인상된다. 오란씨 250ml 캔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7.1%, 350ml 캔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9% 조정된다. 데미소다 250ml 캔 4종(애플·복숭아·레몬·청포도)은 모두 6.3% 상승해 1600원에서 17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오로나민C는 1400원에서 1500원

로 7.1%, 캔이나 페트 대비 원재료비인 상투이 50% 이상 상승한 컨피던스 230ml 병 제품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11.1%, 200원 오른다.

한편, 데자와 캔 제품은 현 가격 유지, 커피 브랜드 ‘이카리아’는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 최근 새 단장을 한 이카리아는 2400원에서 2100원으로 12.5% 내린다. 사용하는 원두는 같지만 추출 방식을 콜드 브루 방식에서 핫 브루로 바꾸고, 사용 페트를 변경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1번가 오픈마켓 9개월 연속 흑자 달성

누적 영업이익 전년 대비 250억 증가

SK스퀘어의 자회사인 11번가가 오픈마켓 부문에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오픈마켓 부문의 누적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50억원 이상 증가했다.

11번가에 따르면, 지속적인 고정비 절감 노력과 연중 최대 소풍 행사인 ‘그랜드 11절’의 효과가 흑자 달성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달 진행된 ‘그랜드 11절’에 맞춰 다양한 할인 행사와 상품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 유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에 집중했다는 게 11번가 측 설명이다.

실제 모바일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11번가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923만 명으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와 전문관도 성장세를 보였다. 11번가에 따르면 생활용품 특화 서비스 ‘홈즈’의 11월 거래액은 전월 대비 2배 증가했으며, 패션 전문관 ‘오오티디’, 명품 전문관 ‘우아력스’ 11월 거래액이 역시 전월 대비 약 20% 올랐다.

한편, 11번가는 이달에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에 집중하고, 연말 할인 행사와 프로모션을 강화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실적 개선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롯데홈쇼핑, 리빙·뷰티 등 홈파티 용품 확대

31일까지 ‘뽕스 2024 연말선물대전’

롯데홈쇼핑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을 맞아 해외 유명 테이블웨어, 인기 뷰티 아이템 등 홈파티 및 선물용 상품 판매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Thanks(뽕스) 2024 연말선물대전’ 특집전을 열고,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글로벌 리빙 브랜드, 뷰티 아이템 등 연말연시 홈파티 용품과 선물로 각광받는 상품 편성도 확대한다.

이달 21일 대표 프로그램 ‘최유라쇼’에서는 500년 전통의 프랑스 유리 제품 브랜드 ‘다로쉐’의 ‘아베이오 컬렉션’을 선보인다. 나폴레옹 황제의 상징인 쥘별 패턴이 새겨져 있으며 접시, 그릇 등 총 8종으로 구성됐다.

22일에는 뷰티·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키스’의 연말 선물 패키지 상품을 소개한다. ‘컬러드키스 핑크 마그넷 쿠션’을



롯데홈쇼핑 기획전 라이브 방송모습. /롯데홈쇼핑

포함해 톱업 프라이머, 컨실러 파운데이션 등 총 6종 구성이다.

이번 기획전은 지난 5일 간 하루 평균 주문액 상승에 따른 기획전이라는 게 롯데홈쇼핑 측 설명이다. 실제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롯데홈쇼핑의 하루 평균 주문액은 직전 5일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다.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건수 역시 3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달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한 명품 주문 건수는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패션은 30% 늘었다.

/안재선 기자

도미노피자

‘콩콩팔팔 크림치즈 스틱’ 오늘부터 겨울 간식 판매

도미노피자가 겨울에 딱 어울리는 간식 메뉴인 ‘콩콩팔팔 크림 치즈 스틱’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콩콩팔팔 크림 치즈 스틱은 지난 10월 출시한 ‘콩콩팔팔 크림 치즈 옛지’를 스틱 형태로 만든 것으로 피자의 옛지를 즐기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기존 치즈스티크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이번 콩콩팔팔 크림 치즈 스틱은 겉은 바삭한 썬 크러스트로 감싸고, 속은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콩팍 무스와 카망베르 크림 치즈 무스로 채워 달달한 간식이 끌리는 겨울에 잘 어울리는 메뉴다. 특히 도미노피자 주문시 사이드 메뉴로 코카-콜라 1.25L와 함께 구매 시 5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미노피자는 피자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콩콩팔팔 동지 특집’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우리동네GS’ 앱 월간이용자 389만명

GS리테일, 2년만에 244만명 증가

GS리테일이 자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GS’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가 출시 2년 만에 244만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 19일 밝혔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의 MAU가 지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389만명으로 집계됐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에 GS25와 GS더프레스를 연계한 차별화된 O4O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전개한 점이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배달 서비스인 퀵커머스 ▲주류 스마트더 서비스인 와인25플러스 ▲마감 할인 등이 우리동네GS 앱의 성장을 이끈 주력 O4O 서비스로 꼽힌다.



고객이 GS25에서 GS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GS리테일

O4O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두 환경의 강점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온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오프라인 경험을 온라인과 연결해 고객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GS리테일은 오는 2025년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O4O 서비스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창작인가 도용인가’… 게임 저작권 새 기준 서울 판결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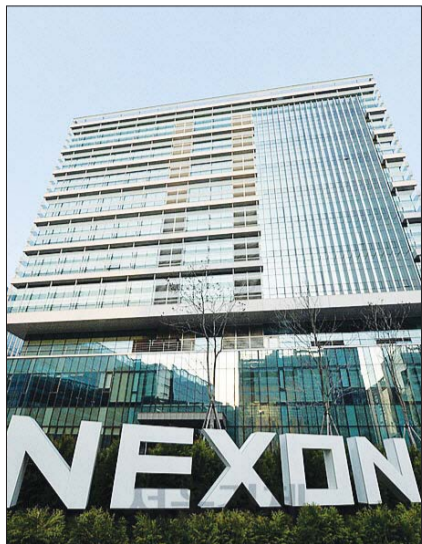
넥슨·아이언메이스, ‘3년간 공방’
넥슨, P3 프로젝트 자료 유출 주장
퇴사자 내부 자료 외부 유출 논란
아이언메이스, 순수 창작물 강조
창작 자유 제한 시 산업 발전 저해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를 놓고 넥슨과의 법적 분쟁이 팽팽한 가운데 국내외 게임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업계 주목도가 높다. 지난 3년간 법적공방을 이어간 만큼 내년 2월 13일 재판 선고가 있을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장에서 넥슨은 자사 신규 개발 본부에서 진행한 ‘P3’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최 모씨가 소스코드, 데이터 등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직접 개발한 ‘순수한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3년간의 공방… 양측 주장 팽팽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이같은 법적 공방은 2021년부터 이어왔다. 공방의 주요 쟁점은 저작권 침해 여부, 영업비밀 부정사용, 고유의 아이디어 등이다. 넥슨은 지난 2021년 8월 최 씨를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판교에 위치한 넥슨 본사 전경. /넥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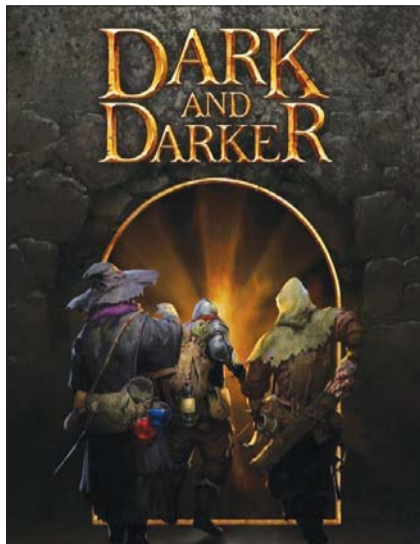
에 고소했다. 최 씨가 넥슨에 재직할 당시 P3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 수사대는 지난 9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A 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소송한 최 씨를 필두로 넥슨 출신 퇴사자들이 모여 설립한 게임사다.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10개월만에 다크앤다커가 출시됐다. 이 과정에서 P3와의 유사성이 논란되면서 공방의 시작이 됐다.

공방의 중심에서 있는 최 씨는 넥슨 재직 당시 P3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이유로 징계하고 처리된 바 있다.

넥슨은 공방 과정에서 크게는 다크앤다커에 담긴 탈출, 줌은 던전으로 내려가는 요소 등이 P3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진 것을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다크앤다커’대표이미지. /아이언메이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최 씨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며, 장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 씨가 개인서버에 자료를 올린 것 역시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요건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넥슨은 “다크앤다커에 접목된 다양한 핵심 요소들이 P3에 담겨있다. 최 씨의 고유 아이디어가 아니다. 회사 연구개발 당시 나온 소스기 때문이다. 두 게임은 장르가 같고 무단으로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측은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 ‘P3’ 관련 자료를 참고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작품이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게임산업 특수성 고려한 판결 나올 것’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부정 경쟁방지법과 저작권 침해 등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된 판결이 나올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판결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성수민 한앤울 변호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비록 기각됐지만, 부정경쟁행위 부분에 해당될 정황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 역시 “그간 판례를 생각해봤을 때, 게임 자체를 온전한 저작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상에서 무단도용 등에 초점을 맞출 듯하다”고 전망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판결이 게임 시장 전반을 뒤흔들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게임업계에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간 저작물침해, 부정 도용 등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업계도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으로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도 크다. 세세한 법적 판단이 오히려 독창적인 게임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는 “게임은 다른 저작물과 달리 특수성이 있다”며 “기준에 있던 걸 변형해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어서다. 기존 게임의 권리를 넓게 인정하면 새로운 게임이 나오기 어렵고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에이피알

K-뷰티테크 해외 공략

CES서 뷰티 디바이스 등 선봬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혁신적인 뷰티테크 기술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 2년 연속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에이피알은 1월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를 비롯한 도심 곳곳에 전시장이 열릴 예정인 ‘CES 2025’에 참가해 ‘메디큐브’ 브랜드를 중심으로 에이지알(AGE-R) 뷰티 디바이스 및 뷰티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CES에 참가하는 에이피알은 베네치안 엑스포 전시장 내 ‘라이프스타일’관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등 차별화된 K-뷰티테크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에이피알의 부스에는 ▲부스터 프로 ▲울트라 튠 40.68 ▲하이 포커스 샷 ▲부스터 프로 미니 등 주력하고 있는 2세대 뷰티 디바이스와 더불어 병용 가능한 화장품 라인이 다수 진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스 방문객이 제품을 통해 ‘미래 뷰티테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에이피알의 설명이다.

에이피알은 이번 CES 2025를 통해 미국의 추가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24년 1월 CES 첫 참가에서 에이피알은 70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방문을 진행한 가운데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 네트워킹과 신규 파트너십 확보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유휘중 기자 yhj@

‘리니지2M’ 中 공략 본격화

엔씨소프트, 텐센트게임즈와 협업
출시 시기 등 상세 정보 추후 공개

엔씨소프트가 MMORPG ‘리니지2M’의 중국 서비스를 텐센트게임즈와 사오밍타이가 연합으로 맡는다고 19일 밝혔다. 리니지2M은 지난 10월 25일 사오밍타이를 통해 중국내 게임 서비스를 위한 외자관호를 발급받았다. 현지 퍼블리싱은 텐센트게임즈와 사오밍타이가 연합으로 맡는다. 중국 서비스명은 ‘天堂2: 盟約(천당2: 맹약)’이다.

텐센트게임즈는 지난 18일 리니지2

M의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중국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엔씨(NC)는 텐센트게임즈와 협업해 리니지2M 중국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게임 출시 시기 등 상세 정보는 추후 공개한다.

리니지2M의 원작인 PC MMORPG ‘리니지2’는 2004년 중국에 출시되어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텐센트게임즈는 2012년부터 리니지2의 중국 퍼블리싱을 맡아 서비스 중이다.

리니지2M 중국 서비스 관련 정보는 텐센트게임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삼양 흰둥이 짱구’ 유기견 보호 나선다

삼양식품, 판매금액 일부 보호소 기부

삼양식품이 스낵브랜드 ‘삼양 흰둥이 짱구’의 판매금액 일부를 강아지 보호소에 기부한다. 삼양식품은 동물자유연대와의 공동 캠페인을 통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소정의 금액을 동물자유연대 강아지 보호소 온도에 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양식품이 기부하는 금액을 사료로 환산할 경우 매월 1000개 이상 제공 가능한 금액이다. 이번 캠페인은 판매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기부와 함께 SNS



삼양 흰둥이 짱구. /삼양식품

이벤트 ‘우리집 멍멍이 자랑대회’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국제약

‘마데카 링클 립밤 3종’

입술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 함유

동국제약은 입술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인 ‘마데카 링클 트리트먼트 립밤’ 3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이다. 또 동국제약이 독자 개발한 핵심 성분인 셀룰라시아이더가 정량추출물에 캐스터오일, 글리세린 등 보습 성분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마데카 링클 트리트먼트 립밤’은 입술 항노화 효과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동국제약은 실제로 해당 제품은 입술 노화 5대 고민인 주름, 탄력, 보습, 치밀도, 볼륨에 대한 4주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티에이징 효과를 입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국제약 ‘마데카 링클 트리트먼트 립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색의 ‘플레인’, 자연스럽게 생기를 부여하는 ‘핑크’, ‘코랄’ 등 총 3가지 색상으로 선보여진다. 이들 모두 다양한 피부 톤에 제한받지 않고 활용 가능하다. 발색까지 조절할 수 있어 낮부터 메이크업까지 다양한 연출을 돕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플루언서 ‘태하’와 홀리데이 캠페인

무신사 스탠다드 키즈, 최대 35% 할인

영유아 일상복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키즈’가 아동 인플루언서 ‘태하’와 함께 연말 및 새해맞이를 기념하는 ‘홀리데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태하’는 무신사 스탠다드 키즈가 지난 18일부터 연말 연시를 맞아 아동 의류 인기 상품을 소

개하는 행사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등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시즌에 맞춰 아동을 위한 가을·겨울 인기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태요미네’의 주인공 태하가 무신사 스탠다드 키즈의 인기 상품을 착용한 화보도 공개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홈쇼핑서 ‘하이문’ 사면 장민호 달려를”

일동후디스, 화보 사진 삽입 탁상 달력

일동후디스가 GS, CJ, 현대, NS 등 홈쇼핑 채널에서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면역케어(하이문 면역케어)’ 구매 시 ‘2025 장민호 달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하이문 면역케어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만들고, 하이문 전속 모델인 장민호와 다가오는 2025년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했다.

일동후디스가 새롭게 선보인 ‘장민호 달려’는 매달 새로운 장민호의 화보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탁상 달력이다.

/신원선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예탁원 KSD나눔재단,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 앞장

지난해 1.5만명 대상 금융교육 제공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장학금 지원
글로벌 차원 사회공헌 활동도 펼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장학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며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예탁원에 따르면 KSD나눔재단은 지난해 1만5491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4월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금융교육사업, 장학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 공익지원사업, 해외지원사업, 수탁사업 등 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뉴시스

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교육사업은 아동·청소년부터 청·중장년층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금융 상식과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을 돕고 있다. 장학사업은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서 당연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뜻한 자본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익 목적의 다양한 지원 사업도 진

행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 지원,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해·재난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증권의 전자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증권 유물을 보존·전시하며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증권전문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예탁원 KSD나눔재단 관계자는 "KSD나눔재단은 단순한 기부자가 아닌 '착한 성장'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변화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자본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투협, 2000만원 상당 학용품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2000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관펀드'를 활용에 진행됐다. 해당 기금은 금융회사와 협회가 법인카드 포인트와 기부금으로 조성한 사회공헌 재원으로, 지원 대상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북, 강원 등 지방과 산간 지역까지 확대됐다. /금투협



'제2회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 시상식

에코프로가 전도유망한 젊은 과학자를 발굴하고 연구 성과를 장려하기 위한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에코프로는 포항캠퍼스에서 '제2회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 분야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흥경 교수, 환경 분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화학과 심교승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코프로



신세계라이브쇼핑 '이로운 나눔 바자회'

신세계라이브쇼핑이 친환경 나눔 가게인 '기빙플러스'와 함께 '이로운 나눔 바자회'를 열고 19일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이달 20일까지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기빙 임팩트 플래자에서 열린다. 이번 바자회에는 약 4000점의 상품이 지원되며, 100명 이상의 직원이 전반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



CJ제일제당, '가족친화 인증' 표창 수상

CJ제일제당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임신한 직원들을 위한 '임신기 단축근로제도' 등을 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CJ제일제당



인하대, 우수작품경진대회 '후원기업상'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SW중심대학사업단 학생들이 최근 열린 2024 SW 인재 페스티벌 '우수작품경진대회'에서 후원기업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58개 SW중심대학의 학생들이 경진대회에 참여했고, 이 중 17개 학교 학생들이 본선에 진출했다. /인하대

SK그룹, 무료 자문단 '프로보노' 성과 공유

500여곳 사회적 기업에 무료자문

SK그룹 임직원 무료 자문단 'SK프로보노(Pro Bono)'가 18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2024 프로보노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SK프로보노는 2009년 출범 이후 16년간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에 무료 자문을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해온 SK 사회공헌 단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프로보노를 시상하는 자리로, 프로보노 생태계 확

산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35개 관계사 2900여명의 임직원이 프로보노로 참여하며 500여곳의 사회적 기업에 무료 자문을 실시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모여 의미 있는 성과도 이뤄졌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협업이 주목받았다. 이번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지표(SVI)에서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사회적 기업과 성장지원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SK프로보노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증권 발행·유통정보 공유체계 구축

거래소-예탁원 '맞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9일 증권 발행·유통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증권 발행 및 상장 업무(발행등록, 권리행사, 상장심사, 공시 등)가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해 해당 업무를 위한 수집·검증작업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대부분 수작업 및 종이문서 육안대사로 이뤄져 양 기관의 업무 부담 가중과 인력운영이 비효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양 기관은 증권 발행 및 상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 정보의 상호공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협력한다. 거래소는 증권의 상장일정·주요공시



(왼쪽부터)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과 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가 '자본시장 발행·유통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및 표준코드 정보, 예탁원은 증권의 발행등록·권리행사 및 의무보유정보 등이다. 해당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등은 거래소의 차세대 상장공시시스템 구축 및 예탁원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XBRL 2.1' 기반의 차세대 상장공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GS칼텍스-KAIST, 다문화 인재양성 나서

GS칼텍스, 매년 1억 발전기금 출연
KAIST, 다문화 유소년 멘토링 진행

GS칼텍스와 KAIST가 다문화인재후원 사업을 함께한다. GS칼텍스는 서울 강남구 GSE타워에서 KAIST와 다문화 우수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뜻을 모아 GS칼텍스는 2024년부터 4년간 매년 1억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며, KAIST는 다문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다문화 재학생 대상 장학금을 지원하고 다문화 유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GS칼텍스와 함께 하기로 했다.

KAIST는 다문화 학생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부터 고른 기회 전형에 다문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GS칼텍스와 다문화 우수인재 양성 협약을 계기로 다문화 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한마음 교육봉사단'과 접목하여 다문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이번 KAIST와의 협약을 통해 다문화 우수인재 육성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제주항공, 제주 해양 환경보호 활동 추진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협력

제주항공이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제주 해양 환경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 해안 정화활동 ▲환경정책 홍보 등 제주도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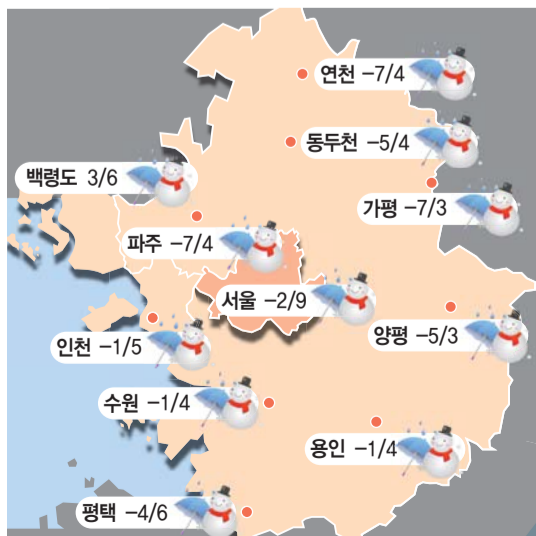
해돋이 / 07:43 | 해질 / 17:17

12월 20일 (금)
음력 : 11월 20일

수도권 날씨

-2 ~ 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사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이현욱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김도형
◆ **중소기업중앙회** ◇전보 <부서장> △조합정책실장 유진호 △회원지원실장 이기중 △조사통계실장 김병수

부음

▲ 김용덕씨 별세, 김재형(금융감독원 국장)씨 장인상, 김경(천호초 교사)씨 부친상, 김유(오콜라호마주립대 교수)씨 부친

상, 이화현씨 시부상 = 1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1일 오전 5시. 02-2072-2010

▲ 허기욱씨 별세, 이미중(순천향대서울병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 19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장례식장 4층 9호실, 발인 21일 오전 5시30분. 장지 원주 추모공원. 02-709-9114

▲ 강신봉씨 별세, 강주인(대원계약경영지원부 이사)씨 부친상 = 서해안장례식장 201호(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97), 발인 21일 8시30분, 장지 진도 의신면 선영. 061-246-4444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샤넬 이벤트



*** 현장방문 참여 가능**

- **이벤트 기간** 2024. 11. 14. ~ 12. 31. (1.5개월)
- **당첨자 발표** 2025. 1. 3.(금) 17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응모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샤넬이벤트 참여
- * 이벤트 참여는 나무가든 현장에서만 가능

- **기타**
- 식사할인권은 고기손님에 한해 적용 (식사손님 불가)
- 생맥주는 식사손님/고기손님 모두 사용 가능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기간 : 2025. 2. 28까지
- 생맥주 1인 2잔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은 테이블당 1회에 한함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중복사용 가능

- **경품**
- 1등 샤넬핸드백 (1명) 1800만원 상당
- 2등 샤넬향수 (15명)
- 3등 나무가든 5만원 식사할인권 (30명)
- 4등 나무가든 3만원 식사할인권 (50명)
- 5등 나무가든 생맥주 2잔 (200명)

- **문의** 02-785-8883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피노누아의 오래된 미래... 제임스 서클링의 '미래'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왼쪽)과 그의 아내 마리 김 서클링이 첫 와인인 '미래 빈야드' 2023 빈티지를 선보였다. /야영FBC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여러했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의 첫 와인 '미래 빈야드(Mirae Vinyard)' 2023 빈티지다. 투명하면서 장미를 연상시키는 연한 루비 색상이다. 와인잔에 따라져 있는 모습을 보곤 내추럴 와인이나 오렌지 와인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다. 딸기 같은 붉은 과실의 향이 올라오더니 꽃향기까지 우아하다. 근래 들어 만나보기 드물었던 피노누아다.

사실 새로운 모습이 아니다. 원래 피노누아는 그랬다. 피노누아의 고향이라는 부르고뉴마저 쉬라즈 같은 진한 색상에 알코올 도수가 13도는 기본으로 올라가는 요즘이지만 신선하면서 가볍고, 섬세해야 피노누아다. 어찌보면 서

클링이 선보인 '미래 빈야드'는 피노누아의 '오래된 미래'인 셈이다.

서클링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직접 만든 와인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를 갖고 "뉴질랜드는 주요 와인 생산국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곳"이라며 "뉴질랜드의 밝고 신선한 피노누아는 1980년대의 고전적인 부르고뉴 피노누아와 비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클링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인 평론가다. 40년 넘게 테이스팅한 와인만도 25만여종에 달하며, 와인 플랫폼 제임스 서클링닷컴을 통해 발표하는 와인 평점에는 와인 업계가 예의주시한다. 국내에서도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 '제섹이 형'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인지도가 높다.

지난 2022년 뉴질랜드 마틴보로를 찾

았다가 와이너리 매각 표지판을 본 게 와인 양조의 출발점이 됐다. 마틴보로는 부르고뉴와 유사한 기후와 토양으로 뉴질랜드에서도 최고의 피노누아 산지로 꼽히는 곳이다. 와이너리는 제임스가 10년 전 방문 당시 깊은 인상을 남겼던 곳인데 소유주가 사망하면서 매물로 나오게 됐다. 1958년생인 그에게 더 이상 가보지 않은 길로 후회할 시간은 남지 않았고, 와인 평론가로서 와인 양조를 좀 더 잘 알았으면 했던 그간의 마음도 더해졌다. 대출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아내 마리 김 서클링의 조건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됐다.

서클링은 "지구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뉴질랜드라는 나라도, 천혜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와인도 모두 미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말 미래의 발음을 그대로 가

져다 와인명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레이블 디자인은 소주 '참이슬'의 글씨로 유명한 강병인 작가의 캘리그래피다. 길에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발견하고는 먹에 찍어 쓰면서 필체도 그렇지만 느껴지는 질감도 독특하다.

사실 와이너리를 사들이고 첫 해인 2023년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포도경작이 쉽지 않았다. 좋은 포도를 고르기 위해 신중을 기하다 보니 생산량이 1600병 밖에 안됐다. 2023 빈티지를 한국과 홍콩에서만 출시하는 것도 그래서다.

와인은 짧은 발효과정을 거치고, 새오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7개월 동안의 배럴 숙성 후 조금은 빠른 병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무겁지 않고 섬세한 와인으로 탄생했다. 알코올 도수도 12도로 가볍다.

그는 "2024년은 기온이 더 높았고 건조해 내년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생산량도 좀 더 늘어 3000병 안팎은 나올 것으로 봤다.

/smahni@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세계를 바라보는 참신한 해석

12.3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보름 넘게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헌법 재판소에서 파면이 최종 확정되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가 집회를 이끄는 주축으로 등장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낸 건 아니다. 왜 어떤 2030세대는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다'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집 밖에 나가지 않았던 걸까.



아이콘
진중권 지음/씨네21북스

을 주는 자의 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바틀비는 적극적 소극성으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청년들은 탄핵을 두고 갈린 두 의견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아무것도 택하지 않음으로써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허나 이는 크나큰 착각이다.

저자는 "참여의 거부는 먹고살기 바쁜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며 "관념적 급진성은 실천적 보수성으로 이어지기 마련, '사이비 저항'의 양파를 까고 또 까면 그 끝에서 바틀비의 사도들은 그저 '무(無)'를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독일의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의 말대로 냉소의 시대에 철학은 장바닥으로 내려와 무례함과 뻔뻔함을 가지고 냉소를 냉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68쪽. 1만4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남류문학론

우에노 지즈코, 오구라 지카코, 도미오카 다에코 지음/최고은 옮김/버터북스

책은 부당하게 고평가를 받아온 남성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메스를 들이대 썩은 부위를 도려낸다. 저자들은 일본문학을 대표해온 남작가들을 '페미니즘 비평'이라는 거울 앞에 깨벗겨 놓고 심판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글에서 여성들을 주인공의 성장을 위한 성적 도구로 사용하며, 고지마 노부오는 소설의 성적 메타

포를 통해 여성을 부당하게 묘사한다. 저자들은 여성의 성(性)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던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자신의 성은 제대로 자각하고 있었는지, 요시유키 준노스케는 왜소한 자아를 가진 여성 혐오자였을 뿐이었던지를 묻는다. 파본한 남류문학의 빈곤한 세계를 통쾌하게 까발린 책. 512쪽. 2만4500원.



제4차 공생

북가일 지음/무릎출판사

초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당일까, 아니면 인류의 한계를 초월해 미래 존속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희망일까.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창의성만은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무모한 낙관에 빠져 있던 이들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가장 먼저 침범되는 것을 목격하며 두려움과 당혹감이 휩싸여 있다.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건 AI와의 공존 변영을

모색하는 대담한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책은 초지능에 '공생'이라는 지구 생태계의 핵심 진화 원리를 적용해 인류와 AI의 상생적 발전을 전망한다. 저자는 사람과 초지능 AI가 공생 관계를 통해 함께 진화해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인간과 초지능이 협업해 인류 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준다. 268쪽. 1만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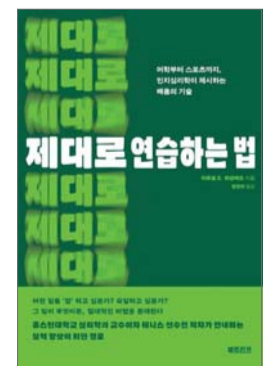
제대로 연습하는 법

이투로 E. 허넨데즈 지음/경진이 옮김/북트리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최소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시간 낭비 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열심히, 오래'가 아닌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저자는 "누구나 발달과 학습의 메커니즘을 영리하게 활용해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며 "연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숙달에 도달할 길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책은 경험과 기억의 작은 조각들이 결합해 새로운 기술로 개화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목적지까지 나아가 수 있도록 인지과학적 탐구를 통해 최적의 경로를 제시한다.

360쪽. 1만8000원.



▲러시아 "미국, 북중러 겨냥해 지정학 게임...재앙적 결과 초래할 수도"
▲일본 이시바·한덕수 통화...“한일 관계 발전” /사진 뉴시스

▲튀르키예정부 “청소년·아동 디지털 중독은 ‘가상 자폐증’의 원인”
▲“미국, 중국산 와이파이 공유기 미국 내 판매금지 검토”



▲러 극동학교서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북러 관계 강화 상징”
▲중·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전문가회의 /사진 뉴시스



컬리푸드페스타
맛·재미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니



Life

넥슨·아이엔메이스
게임 저작권
판결 주목
L2



달콤·촉촉 케이크에 제철 재료까지... 입도 마음도 '사르르'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해태제과 '오에스'

과자공장에서 만들지만 수제 베이커리 못지 않은 케이크 품질을 구현한 최초의 프리미엄 초코케이크 해태 '오에스'는 넘볼 수 없는 기술력에 끊임없이 최신 트렌드를 가미하며 40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다.

◆일상을 특별하게...외국 케이크 못지 않은 품질

1980년대 초반은 외국의 유명 케이크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들어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당시 딱딱한 식감의 과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국내 제과시장에서 케이크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간식 대접을 받았다.

수입 케이크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제품도 만들지 못했던 국내 제과업체들의 새로운 도전은 해태제과로부터 시작됐다. 해태제과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발전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고급 케이크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개발작수 4년만인 1984년 국내 최초 프리미엄 초코 케이크 오에스 개발에 성공했다.

오에스는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촉촉한 빵과 진한 초콜릿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출시 초기부터 시장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출시 1년만에 해태제과를 대표하는 주력 제품으로 성장했다.

1980년대 고급케이크 수요 예측해 제품 개발 국내 첫 프리미엄 초코 케이크로 입맛 사로잡아

연천에서 취수하는 1급수 생수 사용, 수질검증 수분함량 20%... 사계절 내내 촉촉한 맛 유지

◆청정1급수 '물'이 비결

오에스가 국내 제과시장의 스테디셀러로 40년간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물'이다. 출시 이후 꾸준히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 왔는데, 그 핵심은 항상 물이었다. 촉촉한 빵과 달콤한 초코크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맛을 강조하기 위해 수분함량을 꾸준히 높여왔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제품 클레임이 증가하자 수분함량을 기존의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인 12%로 낮추는 계절별 이원화 체제로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06년 해태제과는 계절에 상관없이 높은 수분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명품 오에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1년 연중 수분함량을 18%로 일원화해 사계절 부드럽고 촉촉한 맛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품 제조에 소비되는 1.5톤의 물은 경기도 연천에서 취수하는 1급수 생수만을 사용한다. 물이 곧 오에스의 맛을 좌우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깨끗하고 좋은 품질의 물을 전담관리하는 직원도 별도로 두었다.

이와 함께 대장균 측정장치,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물의 탁도를 체크하는 온라인 센서, 미생물 측정기 등



①오에스, ②오에스 미니, ③오에스 피스타치오, ④오에스 쿠키 앤 크림. /해태제과

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수 수질을 검증하고 최상의 상태를 보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에스는 2006년 대대적인 리뉴얼을 기점으로 매출이 30% 가까이 치솟았다. 해태제과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수분함량을 국내 최고 수준인 20%까지 높이며 촉촉함이 남다른 케이크로 인정받고 있다.

◆40주년 오에스의 도전은 진행중

오에스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200억 개 이상 판매되며 누적 매출 1조8000억 원을 넘었다. 현재도 매년 약 500억원의 매출로 제과시장 대표 프리미엄 케이크다. 그 동안 팔린 제품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22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주 등 14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오에스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본래의 맛은 지키면서도 젊은 트렌드에 맞는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에스가 내놓은 수박, 미숫가루 등 시즌 제품은 지난 몇 년간 케이크 시장을 주도했다. 계절적으로 익숙한 맛을 오에스의 촉촉한 수분에 담아 고급화,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수박, 미숫가루, 바나나 등 계절 한정판 선택 오에스 피스타치오 출시 한 달만에 완판되기도

40주년 맞아 '에스의 케이크가게' 한정 판매 첫 스핀오프 제품에 브랜드 캐릭터 내세워

해태 오에스의 성장세는 2016년 이후 더 뚜렷하다. 바나나 초코파이 열풍으로 시장 점유율이 21%까지 떨어지자 시장의 입맛을 찾기 위한 노력에 집중한 결과다.

승부수는 그 때 아니면 못 먹는 계절 한정판으로 띄웠다. 2016년 바나나를 시작으로 매년 1~3개의 시즌에 디전을 선보였다. 2018년 여름 초대박 히트를 친 수박을 비롯해 미숫가루, 딸기치즈, 로스티드 그린티라미 등 지금까지 나온 에디션은 모두 16개. 시즌제품의 연이은 성공에 이어 올 6월 선보인 '오에스 피스타치오'는 출시 1개월만에 완판되어 추가 생산을 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끌고있다.

출시 40주년을 기념해 첫 스핀오프 제품 '에스의 케이크가게'도 선보였다. 오에스 최초로 촉촉한 빵 사이에 달콤 고소한 마스카포네 치즈와 상큼한 커피 크림을 두 겹으로 담았다. 모양 역시 기존의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한결 깔끔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포장 패키지도 프리미엄 케이크 가게를 입고 더욱 고급스러워졌다. 브랜드 캐릭터를 최초로 내세운 '해태 1호 캐릭터 라이선스' 제품인 것도 감점이다.

해태제과 측은 "오에스 본연의 부드러운 달콤함은 지키면서도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한 것이 시즌 에디션의 인기 비결"이라며 "제철에 먹어야 가장 맛있는 계절 아이템과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찾아낸 것도 성공요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정몽규 축구협회장 "결자해지 각오, 한국 축구 미래에 힘쓰겠다" /사진 뉴시스
▲일본 투수 사사키 잡아라... 양키스도 움직인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혁잇농크!' 무대 선다
▲'올해의 프로듀서상'에 뉴프로덕션 이성진 대표



▲한국프로골프협회 임원, 직원 가혹행위 의혹
▲2024 국내 미술품 경매 낙찰률 46%...5년 만에 최악 /사진 뉴시스